

이 선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건법에 관한 연구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한 정 미

조건법에 관한 연구

이 선 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한 정 미

인 준 서

한정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조건법 Conditionnel은 과거에서의 미래 futur du passé를 나타내는 시제적 가치와 우발성 éventualité, 잠재성 potentialité, 비현실성 irréalité 등과 같은 양상적 가치를 갖고 있는 프랑스어 동사형태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다양한 가치를 지닌 조건법을 언술행위 주체와 관련하여 다성 이론적 입장에서 고찰해 보고 조건법의 용법들을 설명하는 방법을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조건법 연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논문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조건법을 하나의 독자적인 서법 mode으로 분류했던 전통 문법적 입장의 한계점에서 벗어나 조건법의 본질적 특성을 시제적 가치로 설명하고 있는 G. Guillaume의 이론에 대해 소개한다. 그의 이론을 통해 정의된 조건법의 본질적 특성에 근거하여 담화 discours 차원에서 나타나는 조건법의 다양한 용법들을 R. Martin의 관점에 따라 신계적 조건법과 가능세계적 조건법으로 분류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조건법의 용법들을 설명하는데 있어 R. Martin의 이러한 분류법은 조건법의 의미가치들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의 대상이 단순히 언술 그 자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언술행위 상황 특히 화자를 고려한 의미 파악이라는 점에서 Ⅲ장에서 살펴볼 다성 이론적 고찰 방법의 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Ⅲ장에서는 다성 이론을 토대로 한 P. Haillet의 조건법 분석을 다루겠다. P. Haillet는 화자가 자신의 언술 안에서 또 다른 관점을 나타낼 때나 언술의 내용에 대해 일정 거리를 설정하기 위하여 조건법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화자 자신이 산출자가 되는 언술 안에서 조건법을 사용하여 사

행에 대해 어떤 식으로 다양한 관점을 담아 표현해 낼 수 있는지를 실제 예문들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IV장에서는 조건법의 용법들을 A. Culioli의 언술행위이론을 토대로 하여 상위언어로 기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본다. 언술상황에서 사행이 구축되는데 고려되어야 할 시간 변수 T(Instance de localisation temporel des procès)와 주관적인 변수인 주체 S(Instance de subjective de constructions des procès)에 의한 상호작용에서 조건법의 의미가치들을 설명해 볼 것이다. 조건법에 대한 이러한 분석 과정은 언술 주체와 언술행위 상황을 고려한 조건법의 의미가치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형식화된 방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조건법에 대한 기존의 입장들.....	4
1. 조건법에 대한 전통 문법적 관점.....	4
2. G. Guillaume의 입장에서 본 조건법.....	7
2.1. G. Guillaume의 직설법체계.....	9
2.2. 가정적 미래(=조건법).....	10
3. R. Martin의 입장에서 본 조건법.....	14
3.1. 가능세계와 신계.....	14
3.2. 조건법의 용법들.....	17
3.2.1. 신계적 조건법.....	17
3.2.2. 가능세계적 조건법.....	20
III. 조건법에 대한 다성 이론적 고찰.....	24
1. 다성 이론.....	24
1.1. 말하는 주체, 화자, 언술행위자.....	25
1.2. L-화자와 λ -화자.....	26
2. 다성의 표지로서의 조건법.....	28
2.1. 화자의 현실세계와 조건법의 의미적 불변소.....	28
2.2. 시제적 조건법에 나타난 언술 주체의 복수성.....	31
2.2.1. 시제적 조건법의 주관적용법.....	32
2.2.2. 시제적 조건법의 객관적용법.....	34
2.3. 양상적 조건법에 나타난 언술 주체의 복수성.....	36

2.3.1. 언술적 이타성의 조건법.....	36
2.3.1.1. 구별되는 다른 화자의 암시.....	37
2.3.1.2. 동일한 화자의 이중분리.....	40
2.3.2. 가정의 조건법.....	44
2.3.2.1. «Si p, q» et «~q».....	45
2.3.2.2. «Si p, q» et ni «q», ni «~q».....	47
2.3.2.3. «Si p, q»와 탈현동화의 효과.....	48
IV. 조건법에 대한 언술행위론적 접근.....	53
1. 언술행위이론의 방법론.....	53
1.1. 좌표결정작용.....	54
1.2. 위치결정작용과 유효화작용.....	56
2. 사행의 좌표결정작용과 조건법.....	57
2.1. S와 T의 면에서 살펴본 조건법.....	59
V. 결론.....	64
참고문헌	
불문요약	

I. 서론

본 논문은 프랑스어에서 *-rait* 형태로 나타나는 동사 형태 *forme verbale*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즉 조건법 현재 및 과거에 해당하는 동사 형태들에 관한 연구이며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이 동사 형태를 조건법 *conditionnel*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조건법에 대한 연구는 그 형태의 위상 *statut*을 규정하는데 있어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첫째는 조건법을 직설법 *indicatif*이나 접속법 *subjonctif* 등과 같은 하나의 독자적인 서법 *mode*으로 보는 전통 문법적인 입장과, 둘째는 미래 *futura*나 반과거 *imparfait*처럼 직설법의 한 시제 *temps de l'indicatif*로서 시제적 용법에서 양상적 용법이 파생되는 언어 형태로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통 문법적 입장을 따라 조건법을 독립적인 하나의 서법 형태로 파악하게 되면 시제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는 조건법이 나타나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그 용법들에 대한 나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뒷받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전통 문법적 입장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은 G. Guillaume과 R. Martin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거의 완벽하게 설명되었다. G. Guillaume은 조건법이 랑그 *langue* 차원에서는 시제적 기능을 갖고, 담화 *discours*¹⁾ 차원에

1) Saussure의 방정식(*Langage = langue + parole*)은 Guillaume에 의해 *Langage = langue + discours*로 수정되는데 이는 파롤 *parole*이 랑그의 구어적인 활용으로만 사용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파롤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기호나 몸짓, 문자 등으로써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cf. 질 시우피, 단 반 람돈크(2005), 이선경, 황원미 옮김, 『언어학 이해를 위한 주제 100선』, 동문선, p.412

서는 다양한 상황 situation에 따라 시제적 기능 및 양상적 기능을 갖게 되는 과정을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건법을 직설법 시제로 파악하는 입장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또한 R. Martin은 담화 차원에서 나타나는 조건법의 다양한 용법들을 가능세계 monde possible와 신계 univers de croyance의 개념에 따라 체계적인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조건법에 있어서 특수하다고도 여겨질 수 있는 ‘조건법은 과연 독립적인 서법인가 아니면 직설법 시제인가?’ 라는 문법적인 범주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떤 새로운 의문점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 보다는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 성과의 토대 위에서 조건법을 다성 이론 la théorie polyphonique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A. Culioli의 이론에서 조건법의 용법들을 상위언어 métalangue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II장에서는 조건법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을 정리해 본다. 조건법에 대한 과거 전통 문법의 한계점에서 출발하여, G. Guillaume이 설명하고 있는 조건법의 chronotype α 와 chronotype ω 의 속성을 통해 랑그 차원에서 조건법이 시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본질적 특징이 담화 차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용법들을 설명해 낼 수 있음을 살펴본다. 또한 R. Martin의 가능세계와 신계의 개념을 도입해 담화 상에서 나타나는 조건법의 용법들을 신계적 조건법과 가능세계적 조건법으로 분류해 정리해 보겠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조건법에 대한 설명들이 점점 구체화 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III장에서는 조건법의 다양한 의미효과들을 다성 이론을 통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이론의 기본적인 토대는 하나의 동일한 언술이라도 서로 다른 언술행위자들에게서 비롯된 다양한 목소리의 흔적을 담아낼 수 있으

며 시대 époque나 시간점 point temporel이 변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언술 행위자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데 있다²⁾.

P. Haillet는 조건법을 다성의 표지로 보았다. 따라서 조건법의 용법들 안에서 다양한 관점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실제 담화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분석에 앞서 먼저 다성 이론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조건법의 사용을 화자의 현실세계 *réalité du locuteur*와 하나의 언술에 나타나는 언술 주체의 복수성 *pluralité du sujet de l'énonciation*의 개념과 결부시켜 살펴봄으로써, '조건법에 내재하고 있는 지배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다성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본 조건법에 나타난 다양한 언술 주체와 관련하여 A. Culioli의 좌표결정작용이론을 토대로 조건법의 용법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A. Culioli는 언어학을 '자연어 *langue naturelle*의 다양성을 통해 파악되는 언어활동 *langage*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언어활동 자체를 화자가 표상을 구축하는 활동으로 파악하였다³⁾.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조건법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층위와 연계시켜 고찰해 봄으로써 조건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P. Dendale(2001), "Les problèmes linguistiques du conditionnel français" dans *Le Conditionnel en français*, Université de Metz, p.11

3) 이선경(1994), 「펠리올리의 좌표결정작용이론」, 『현대 불란서 언어학의 방법과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pp.160-161

Ⅱ. 조건법에 대한 기존의 입장들

1. 조건법에 대한 전통 문법적 관점

전통 문법에서 서법 mode⁴⁾은 인칭서법 mode personnel으로서 직설법 l'indicatif, 접속법 le subjonctif, 명령법 l'impératif, 조건법 le conditionnel의 4가지로 분류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고의 양상 modalité⁵⁾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직설법은 객관적인 현실을 나타내는 서법이며 접속법은 욕망, 의심, 비현실 등을 나타내는 서법으로, 조건법은 어떤 조건에 놓여진 사실에 대한 서법이고 명령법은 명령을 나타내는 서법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화자가 조건법을 사용함으로써 언술을 발화할 때는 그 사행 procès에 대해 우발성 éventualité, 잠재성 potentialité, 비현실성 irréalité

4) 우리가 의사전달 행위를 할 때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일정한 가치가 나타날 수도 있고 화자와 언술 énoncé 사이에서 화자의 태도, 즉 modalité d'énoncé가 수반될 수도 있다. 이 modalité d'énoncé가 동사형태의 변이로 실현될 때 이를 서법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modalité란 언어적으로 실현될 일정 가치를 지칭하며 서법은 그 가치가 언어 형태 특히, 동사라는 언어형태 속에서 실현된 문법범주이다.

cf. 황원미(1986), 『Conditionnel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9-20

5) 양상 modalité은 화자가 동사에 의해 사행 procès를 표현할 때 그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일컫는다. 이 심리적 태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문장의 유형(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등)이나 화자가 자신의 언술행위를 나타내는 방법(직설법, 접속법 등)으로 정의되는 서법을 포함할 수도 있다. 논리적 양상 modalité logique의 정의를 따르면 대표적인 양상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진리관계 양상 modalité aléthique : nécessaire, impossible, possible, contingent

-의무양상 modalité déontique : obligatoire, interdit, permis, facultatif

P. Larreya는 의무 양상을 근본적 양상 modalité radicale으로, 진리관계 양상을 인식적 양상 modalité épistémique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R. Martin은 양상은 조동사(pouvoir, devoir 등)나 시제, 형용사와 부사 등에 의해 표현된다고 본다.

cf. 오주연(1996), 『단순미래와 조건법 : G. Guillaume과 R. Martin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8

을 나타내게 된다고 설명한다.⁶⁾

그러나 조건법의 용법들 중 양상적 용법과 관련된 용법들이 숫자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⁷⁾고 해서 조건법의 본질적 성질을 서법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조건법의 본질적 성질을 서법으로 보는 입장이 옳다면 양상적 조건법이라는 가치가 시제적 조건법이라는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볼 수 있다.

(1) Paul pensait que Jean reviendrait le lendemain soir.

위의 예문에서 *reviendrait*는 앞서 언급한 우발성이나 잠재성, 비현실성을 나타낸다고 보기 힘들다. *revenir*라는 사행은 주절 동사 *penser*를 기점으로 후행적 관계 *posteriorité*를 나타내는 시제에 관계되는 것으로 ‘과거에서의 미래 *futur du passé*’라는 ‘시제성 *temporalité*’을 띠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 문법에서는 시제적 조건법과 양상적 조건법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직설법 시제로 분류되는 *미래 futur*나 *반과거 imparfait*에서도 다음과 같은 양상적 기능이 나타나지만 이들을 또 하나의 서법으로 분리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2) 어조 완화의 미래 : Vous prendrez le premier chemin à droite.

(3) 어조 완화의 반과거 : Je voulais vous demander un renseignement.

이처럼 조건법을 하나의 서법으로 인정하려는 전통 문법적 입장의 문

6) 조건법은 발화된 행위를 개연적인 것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가정된 사실, 즉 조건에 대한 가능한 결과나 비실재적인 결과로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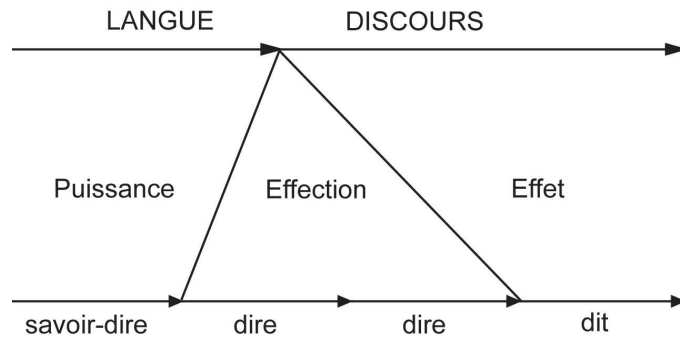
cf. 황원미, *op.cit.*, p.5

7) *Ibid.*, p.6

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하여, 한 동사형태의 진정한 의미는 랑그 차원에서 결정되어 담화 차원의 많은 의미효과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G. Guillaume의 이론에 입각하여 시제적 조건법과 양상적 조건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이는 조건법의 시제적 기능과 양상적 기능에 대한 통일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G. Guillaume의 입장에서 본 조건법

G. Guillaume은 언어학의 과제를 랑그 langue의 분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어행위 전체를 고려하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G. Guillaume의 정신역학론⁸⁾은 langue puissanciel에서 discours effectif로의 이행에 관심을 둔다.



(도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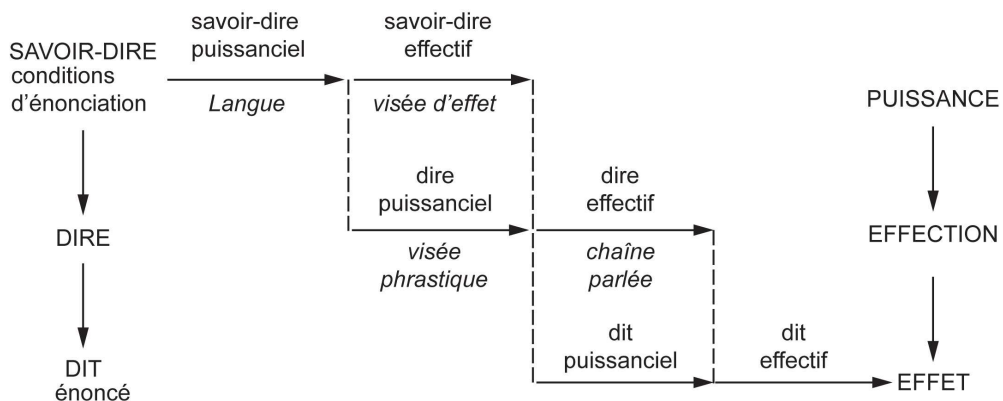
A. Joly⁹⁾는 위 도식을 통해 dire의 과정은 언술행위 énonciation라는 행위로 정의된다고 설명하며, dit는 전이가 끝난 결과물, 즉 언술이며, savoir-dire는 언술행위의 조건이 된다. 또한 다음의 도식(2)¹⁰⁾에서 우리

8) G. Guillaume의 언어이론은 정신역학론 psychomécanique, 정신체계론 psychosystématique, 정신기호론 psychosémiologie으로 나뉘어지는데 그의 이론을 총칭하기 위해 다음의 논문에서 '정신역학론'이라는 용어를 인용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G. Guillaume의 이론은 주로 이 논문을 참고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

cf. 박동렬(1992), 『Psychomécanique의 시각으로 본 Le Conditionnel』,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38

9) Ibid., p.12에서 재인용, A. Joly(1987), *Essais de systématique énonciative*,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p.31

는 savoir-dire, dire, dit가 분절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savoir-dire puissanciel은 화자 안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며 순간적인 것이 아닌 독립된 puissance puissancielle이다. 반면 savoir-dire effectif는 특정한 언술행위에 적합한 savoir-dire를 표현하는 puissance effective이다. 그것은 담화를 위한 visée d'effet로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특정한 관점을 갖고 언술행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언술행위자 énonciateur는 la visée d'effet에서 정신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작용자로 개입된다. 여기서 우리는 G. Guillaume의 언어분석에서 언술행위자가 언어활동과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정신역학론이 넓은 의미에서 언술행위이론을 포함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해 준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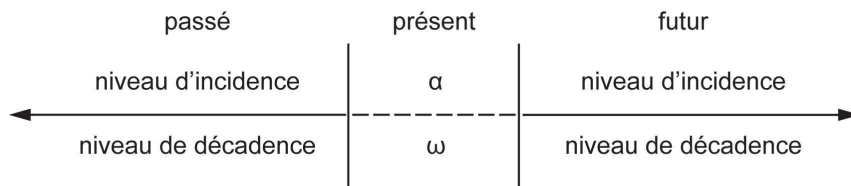
(도식2)

10) Ibid.,p.13에서 재인용, A. Joly(1987), p.41

11) Ibid.,p.13

2.1. G. Guillaume의 직설법체계

G. Guillaume은 직설법 시제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현재 présent를 분석한다. 현재는 양방향으로 무한히 뻗은 시간축 위에서 과거 passé와 미래 futur를 분할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사건이 전개되는데 필요한 시간도 자체 내에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현재는 아직 실재하지 않지만 잠재적이며 다가오는 미래에 속한 부분 chronotype α 또는 incidence 차원과 이미 경험된 과거에 속한 부분 chronotype ω 혹은 décadence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는 끊임없이 α 에서 ω 로 전이되는 과정이다. 그는 정신이 어디에서 포착하느냐에 따라 동사 구조를 두 차원 niveaux으로 나누게 된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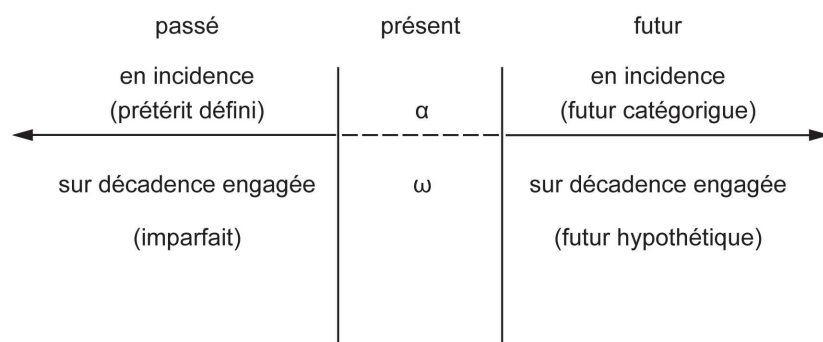


(도식3)

과거시제에서 *반과거*는 완료된 accompli 시간과 완료되지 않은 non accompli 시간을 결합하면서 과거를 향해가는 시간의 이미지를 갖는다. 따라서 *반과거*는 *현재*의 이미지를 갖기도 한다. 한편 미래시제에서 in-

12) Ibid., pp26-27에서 재인용, G. Guillaume(1971), *Leçon de linguistique*, 1948-1949, Série A, Structure sémiologique et structure psychique de la langue française 1,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Klincksieck, p.94

cidence만 있는 미래를 단정적 미래 futur catégorique¹³⁾라고 한다. 이것은 현재의 chronotype α 에서 미래방향으로 시간의 이미지를 구성하는데 미래는 본질적으로 상상하는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가정 hypothèse을 포함하고 있다. 또 상상적인 시간의 이미지가 incidence와 décadence 두 차원에서 구성되어질 때 얻는 시제는 가정적 미래 futur hypothétique(즉 조건법)이다. 이 시제는 미래가 갖는 고유의 가정에 초과량 surcharge을 가져다준다. 결론적으로 G. Guillaume의 시제체계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¹⁴⁾



(도식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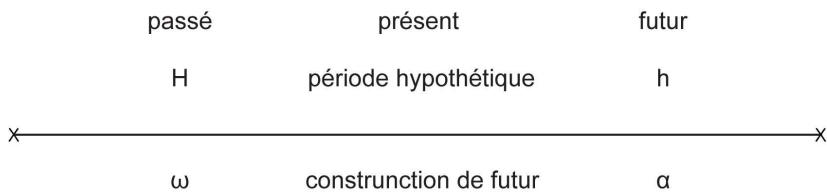
2.2. 가정적 미래 Futur hypothétique(=조건법)

앞서 언급했듯이 미래는 미래시제의 본질적 특성상 가정을 전제하게 된다. incidence 차원의 단정적 미래 futur catégorique(=미래)는 가정이

13) cf.오주연(1996), p.35

14) 박동렬, op.cit., p.30에서 재인용, G. Guillaume(1969), *Langue et science du langage*, Librairie A.-G. Nizet, p.200

그 자체 내에 포함된 내재적 가정 *hypothèse inhérente*이며 상상하고 가정하는 시간이지만 과거와의 균형을 위해서 최소한의 가정적 요소를 갖고자 사행에 대해 가능한 가정을 적게 하여 최대한의 실재성을 부과하려는 특성을 갖는다. 반면 *décadence* 차원에서 이루어진 *가정적 미래*인 조건법은 가정의 초과량이 부과되어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적어지게 된 것이다.



(도식5)

위 도식 (5)¹⁵⁾에서 *h*는 최소의 가정량을 나타내며 그것은 *a*와 동일하다. *단정적 미래*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H*는 최대의 가정량을 나타내며 ω 와 일치하고 *가정적 미래*인 조건법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조건법은 *과거*를 기점으로 출발하여 *후행성*을 나타내고 *미래*는 *현재*를 근거로 하여 목표 *visée*가 출발한다. 결국 시제적 가치를 지닌 조건법은 과거의 기점을 나타내는 과거시제와 함께 쓰이게 되는 것이다.

이제 조건법이 *미래*와 달리 과거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래*와 유사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특성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15) Ibid., p.32에서 재인용, G. Guillaume(1970), *Temps et verbe*, Champion, pp.55-56

조건법은 도식(4)에서 보는 것처럼 *반과거*와 같은 *décadence* 차원에 있다. 이 둘은 또한 형태론적으로도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반과거*는 *il chantait*라는 문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부분(α)과 노래를 불렀던 부분(ω) 모두를 포함하는데 조건법은 ‘*elle m’a dit qu’il chanterait*’라는 문장에서 보듯이 이미 경험된 사실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조건법의 ω 는 담화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적 가치를 파생시키게 된다. 다시 말해 *반과거*의 용법들 중에서 가정적 표지 *indice hypothétique*인 *si* 다음에 나오는 *반과거*는 *chronotype* ω 가 제로화된 경우이다. 또한 가정적 표지 *si* 다음에는 *-r-*을 포함하는 동사형태가 쓰이지 못한다(*S’il pleuvra*와 *S’il pleuvrait*는 비문이다). 이것은 *si*와 표지 *-r-*은 모두 *chronotype* ω 를 축소시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반과거*의 경우 담화의 상황에 따라 *si*의 사용과 함께 *chronotype* ω 가 축소되어 기능을 하지 않게 된 것이고 조건법의 경우에는 랑그 차원에서부터 표지 *-r-*에 의해 *chronotype* ω 가 축소되어 흔적만 남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건법의 *chronotype* ω 는 축소되었기 때문에 *chronotype* α 만이 역할을 하게 되고 축소된 ω 는 과거시제로 표현되는 과거의 기점을 갖도록 하여 출발점을 과거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결론적으로 조건법의 본질은 *chronotype* ω 가 축소된 채 *chronotype* α 만이 작용하는 시제로서 정의될 수 있다. 조건법이 기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래*와 유사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시간을 표현하는 *chronotype* α 만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조건법의 *chronotype* α 의 속성을 분석하여 조건법이 담화 차원에서 어떻게 다양한 양상적 용법까지 나타내게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현재에 있어서 chronotype α 의 부분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만약 이 chronotype α 가 사라진다면 현재의 사행은 과거로 던져져 완료된 부분 accompli 만으로 이루어지는 시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chronotype α 와 chronotype ω 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잠재적 부분을 되도록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가정적 요소를 최대한으로 축소시키려고 한다. 반면 반과거의 chronotype α 는 반과거가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에 위치하기 때문에 현재와는 달리 이미 실재한 시간인 것이다. 따라서 반과거의 chronotype α 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 오히려 배제되었던 가정적 요소를 추구하게 만든다¹⁶⁾. 다시 말해 인위적으로 잠재성 virtualité을 부여하게 된다. 이처럼 현재의 chronotype α 를 근간으로 형성된 미래는 가정량을 최소로 하는 경향을 띠며 조건법은 반과거의 chronotype α 를 근간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정량을 최대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같은 조건법의 chronotype α 의 특성은 담화 안에서 양상적 용법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조건법의 시제적 용법의 경우, 주절 동사에 의해 조건법의 기점이 과거와 연결된다. 그러나 주절동사와의 관계가 없어서 과거와 연결되지 못하면 조건법은 현재의 기점 주위로 옮겨지면서 재구성되어 다양한 양상적 용법이 파생되는 것이다. 이는 반과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chronotype ω 가 축소된 반과거는 현재의 기점으로 옮겨지면서 양상으로 접근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16) 두 시제의 chronotype α 속성의 차이는 다음의 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 Si Fred vient, Lisa sera contente./Si Fred venait, Lisa serait contente.

: 조건절에서 현재는 반과거보다 venir라는 사행이 사실이 될 확률이 더 높을 때 사용하며 si 절에서 반과거를 사용하여 가정할 때는 가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cf. 황원미(1986), p.36

3. R. Martin의 입장에서 본 조건법

3.1. 가능세계 monde possible와 신계 univers de croyance

가능세계¹⁷⁾라는 개념은 시간의 축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시간의 개념을 선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언어적인 비현실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된다¹⁸⁾. 그러므로 다음의 도식 (6)에서와 같이 가능세계는 분기적 시간 temps ramifié와 관계된다. t라는 시점에서 가능성은 두 갈래를 전제하고, t+n 시점에서 또 다른 새로운 갈래가 계속 생김으로 해서 가능세계는 무한히 다양한 분기적 시간의 시점들이 된다¹⁹⁾.

17) 가능세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① 잠재적 가능세계 monde potentiel(m) : 이 세계는 화자가 현존세계(m₀)로 간주하는 세계와 모순되지 않는다. 따라서 잠재적 가능세계에서 참(또는 거짓)으로 나타나는 문장은 현존세계에서 참(또는 거짓)으로 되는 것이 가능하다.

ex) Si Pierre revient, je serai heureux.

이 예문은 'Pierre revient'이 참인 가능세계에서 언급된다.

② 반사실적 가능세계 monde contrefactuel(m') : 반사실적 가능세계에 속하는 문장은 m₀와 모순된다. 따라서 m'에서 참으로 간주하는 문장은 m₀에서 거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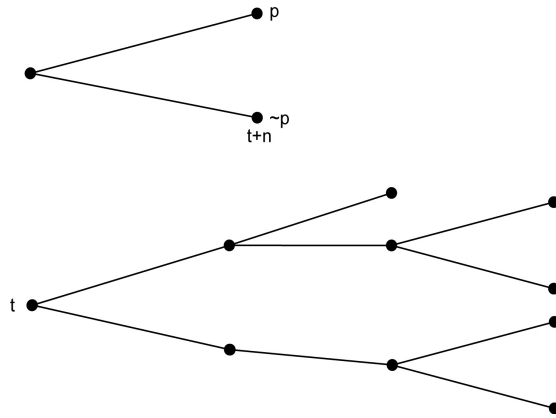
ex) Si Pierre était revenu, j'aurais été heureux.

이 예문은 'Pierre n'est pas revenu'를 암시한다.

cf. 오주연(1996), p.81

18) 박동렬(1996), p.45

19) R. Martin(1983). *Pour une logique du sens*, PUF, p.30



(도식6)

가능세계 의미론은 미래라는 시간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불확실성이나 시간의 불가역성 irréversibilité으로 인해 과거와 관련해서는 정보에 대한 무지나 정보의 불충분성에 의해서 가능성과 연관될 수 있다. 'Pierre reviendra'라는 언술은 명제 P가 참이 되는 미래의 어느 한 순간과 관련된 하나의 세계를 생각하게 해 준다. 따라서 현재와 반과거를 기점으로 후행성을 나타내는 미래와 조건법은 후행성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가능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행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이는 사행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상을 나타내는 성향이 강하여 다양한 상상적 용법을 파생시킬 수 있다. 이 때 미래와 조건법은 후행성의 의미보다는 현재에 가까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R. Martin은 가능세계를 신계의 하위개념으로 설정하였다²⁰⁾. 또한 신계

20) Ibid.,p.53

를 화자가 의사표시를 할 때 진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진으로 믿게 하려는 명제들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²¹⁾. 일반적으로 화자는 자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며, 따라서 언어학적인 진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이 부여되는 진리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화자가 말하는 모든 명제들이 다 진실일 수는 없으며 진실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잠재적인 절들과 실제로는 거짓으로 나타나는 절들도 있을 수 있다. 이 때 화자는 자신의 신계(u) 안에서 화자 이전의 세계, 즉 언술행위자의 신계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타자의 신계 l'hétéro-univers, (u')²²⁾라고 한다. 예를 들어 'Pierre dit que Sophie est malade'에서 Pierre의 신계는 화자의 입장에서 타자의 신계(즉 화자가 보고자로 지켜 본 언술행위자의 신계)가 되는 것이며 'Sophie est malade'는 화자의 신계 univers du locuteur와 Pierre의 신계에서 진이 되는 언술이다.

또 다른 신계의 종류로는 반사실적 신계 l'anti-univers, (\bar{u})가 있다. 반사실적 신계란 t_0 시점에서 위이지만, 진이 될 수 있거나 진이라고 상상하는 명제의 총체이다²³⁾. 이것은 반사실적 가능세계들 mondes contrefactuels의 총체이며 비현실적인 것, 즉 반사실적 세계에서만 진이 될 수 있는 것이다²⁴⁾. 예를 들면 'Si Pierre avait réussi....'는 Pierre가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뜻하지만 반사실적 신계에서는 Pierre가 성공할 수도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화자의 신계에서는 $\sim p$ 가 진이지만 반사실

21) "On appellera <univers de croyance> ou <univers> l'ensemble indéfini des propositions que le locuteur, au moment où il s'exprime, tient pour vraies ou qu'il veut accréditer comme telles.

Ibid.,p.36

22) Ibid.,p.38

23) cf. 이정(1994), 「마르텡의 의미론」, 『현대 불란서 언어학의 방법과 실제』, 연세대 출판부, p.385

24) R. Martin, op.cit.,p.38

적 신계에서는 p가 진이 된다.

3.2. 조건법의 용법들

chronotype ω 가 축소된 조건법은 *반과거*의 chronotype α 를 근간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정의 초과량을 지닌다는 것을 앞서 G. Guillaume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제 전통 문법에서 조건법을 시제적인 용법과 양상적인 용법의 대립으로 파악했던 것과는 달리 조건법에 내재된 chronotype α 의 특성을 통해 R. Martin이 제시한 가능세계와 신계의 개념을 사용하여 담화 차원에서 나타나는 조건법의 다양한 용법들을 신계적 조건법과 가능세계적 조건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3.2.1. 신계적 조건법 conditionnel u

신계적 조건법에 해당되는 용법들의 공통점은 신계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점이다. 전통 문법에서 시제적 조건법 conditionnel temps이라고 불리는 과거에서의 미래를 나타내는 조건법과 불확실한 정보의 조건법 conditionnel de l'information incertaine, 수사적 의문형의 조건법²⁵⁾conditionnel de l'interrogative rhétorique 등이 대표적인 신계적 조건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제적 조건법과 불확실한 정보의 조건법

25) 수사적 의문문 interrogation rhétorique이란 답이 이미 알려져 있거나 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형이다. 신계적 조건법은 청자의 답을 기대하는 정식 의문형식 interrogation vraie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조건법을 사용한 비도치 의문문 'Et il serait à Paris?(그가 파리에 있을까?)'는 'Il n'y est pas(그는 거기에 없다)'를 의미하며 도치형 의문문 'Serait-il à Paris?(그가 파리에 있지 않을까?)'는 'Il y est(그가 거기에 있다)'라는 긍정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cf. 이정, op.cit., p.393

만 다루기로 한다.

a. 시제적 조건법

이 신계적 조건법은 언술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건 아니건 간에, que나 의문사 si와 함께 쓰이거나 자유간접화법 안에서는 que와 si가 생략된 채 쓰이기도 한다.

- (4) Les Argentins pensaient que les Anglais se contenteraient de faire un peu de bruit pour la forme. (Le Nouvel Observateur, 1982)
- (5) Il a annoncé qu'il arriverait bientôt. (Chevalier et alii 1964: §509)
- (6) Je sautai dans un taxi. (Je me disais que) Il n'arriverait jamais.
- (7) Paul a dit qu'il serait revenu le lendemain soir.

예문(4)에서는 조건법의 사용으로 과거시제인 *반과거*를 기점으로 하여 과거에 대해 후행성 관계를 나타낸다. 즉 chronotype ω 가 축소되었으나 그것은 조건법이 과거를 기점으로 삼게 한다. 조건법은 주절에서 진술동사 *verbe déclaratif*²⁶⁾와 함께 사용되어 과거 속에 위치하게 된다. 여기서 조건법의 chronotype α 는 사행을 가능세계에 속하게 하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치를 갖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조건법의 chronotype α 는 *미래*의 chronotype α 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화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일어난 과거이지만 주절 동사의 주

26) 여기서 진술동사란 *verbe d'opinion, verbe de croyance*를 포함하며, 예를 들면 동사 *dire, affirmer, croire, supposer, penser* 등이 있다.

cf. 황원미(1986), p.44

어 입장에서는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화자는 인위적으로 가정적 요소를 만들어 내야 한다. 미래는 화자의 신계에서 사행을 포착하게 되지만 조건법에서는 문장의 주어의 시각에서(u') 사행을 포착하게 된다. 화자는 단순히 주어의 시각을 보고할 따름이며 조건법으로 표현된 동사 'se contenter'는 화자 자신의 신계(u) 밖에 있는 변화된 세계, 즉 타자의 신계(u')에 위치하게 된다. 한편 예문 (7)에서 복합형(조건법 과거)은 단순형(조건법 현재)과 비교하여 시상 aspect의 대립을 나타내며 단순형은 사행의 미완료 *inaccompli*를 복합형은 완료 *accompli*를 의미한다.

b. 불확실한 정보의 조건법

불확실한 정보의 조건법은 과거에서의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적 조건법과는 달리 과거 기점과의 연결이 제거된다. 이 용법에서 나타나는 단순형은 t_0 ²⁷⁾의 관계에서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고 복합형은 t_0 와의 관계에서 볼 때 과거를 나타낸다.

(8) Raynaud ferait partie d'une bande et aurait des complices anarchistes.

(9) Selon l'AFP, le Président aurait été malade.

위의 두 예문들에서 사용된 조건법의 용법은 화자가 확신하지 못하는 정보를 전달할 때 생기는 의미효과들이다. 화자는 자신이 이야기한 내용에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며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법의 용법은 Dendale²⁸⁾에 의해서 '소문의 조건법 le conditionnel

27) 여기서 t_0 는 언술행위 순간의 원점을 나타낸다.

de la rumeur'이라고 일컬어졌는데 뉴스나 신문·잡지 등에서 많이 쓰이며 특유의 의미효과를 가진다고 여겨져 최근에는 '신문·잡지 특유의 조건법 le conditionnel journalistique'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결국 이 의미효과도 화자 자신의 신계(u)가 변화되어 다른 세계(u')로 전이됨을 나타내는데 이 같은 신계의 변화에 대한 언급은 (8)처럼 언급되어 있지 않을 때도 있고 (9)에서 처럼 명백히 언급될 경우도 있다. 그러나 때로는 특별한 언급 없이도 우리는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기사 등의 문맥을 접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신계의 변화를 암시받을 수 있다.

3.2.2. 가능세계적 조건법 conditionnel m

가능세계적 조건법은 명시적이든 또는 비명시적이든 가정을 나타내는 si와의 상관관계에서 파생된다.

a. 가정 체계 système hypothétique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법의 용법들의 특징은 접속사 si로 연결되는 조건절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이다.

(10) Si tu faisais cela, je te haïrais.

(11) Si tu voulais, je le partagerais avec toi.

(12) Si j'avais su qu'il était à Paris, je serais allé le voir

28) L.Gosselin(2001) "Relations temporelles et modales dans le conditionnel journalistique" dans *le conditionnel en français*, Université de Metz, p.45

위와 같은 «si p, q» 구문에서 p와 q는 논리적 관계를 가지며 이 때 나타나는 의미효과는 화자의 태도에 따라 ‘잠재성’과 ‘비현실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화자가 t_0 나 t_{0-k} 에서 p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가정할 경우, q에 나타나는 사행은 비현실적인 것이 된다. t_{0-k} 에서는 p가 가능세계에 속하지만 나의 신계에서는 분명히 $\sim p$ 라고 알고 있으므로 반사실적 신계 anti-univers(\bar{u})와 일치한다. 이때는 q에 나타나는 조건법이 조건법의 본질적 특성인 chronotype α 가 가정량을 증가시켜 최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가능한 의미효과이다²⁹⁾. 예문 (10), (11)에서와 같이 t_0 에서 조건절 p의 가정 내용에 대해 진위여부를 알지 못한다거나 바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게 된다면 q는 잠재적인 potentiel 의미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화자는 p의 가정 내용의 사실성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데, 이 점은 미래에 나타나는 가정 체계 système hypothétique와 구별되는 점이다. 또한 «si p, q» 구문에서 나타나는 단순형과 복합형의 대립은 시간적인 대립을 보여주는 데, 단순형은 현재 사실과 미래 사실을 가정할 경우에 생기는 결과를 나타내며 (12)의 예문과 같은 복합형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실을 가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는 실제 결과를 알고서 가정하는 경우가 되므로 ‘비현실성’이라는 의미효과만을 나타낼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조건법의 용법들은 si로 시작하는 조건절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생략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용법들에 관계된다. 이 경우 결과절에 사용된 조건법도 역시 가능세계의 영역 속에 놓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9) cf. 박동렬(1996), p.59

- (13) Il rêve d'une femme qui serait...(si elle existait...)
- (14) Je m'écrase le nez à la vitre, je reste, je me dis intensément j'aurais ce wagon-là, j'aurais ce signal, là, il est joli...je possède tout ce que je désigne... suffit de dire dans ma tête 'j'aurais', c'est fait. (si mon voeu se réalisait) Cavanna, Les Ritals
- (15) On dirait mon grand-père. (si l'on ne savait pas que ce n'est pas lui.)
- (16) Je voudrais parler à M. le Directeur. (s'il m'était permis)

예문 (13)은 관계절에 사용된 조건법 conditionnel en relative, (14)는 상상의 조건법 conditionnel de l'imaginaire, (15)는 착각의 조건법 conditionnel de l'illusion³⁰⁾이라고 불리는 조건법의 용법들이다. 특히 예문 (16)은 예의적인 완곡 표현의 조건법 conditionnel de l'atténuation polie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조건법의 용법 중 하나인데, 좀 더 다양한 예의적 어조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 (17) (Si je pouvais me permettre d'énoncer la demande suivante...),
je voudrais un peu plus d'eau / je voudrais un carnet de timbres.
- (18) (Si vous me permettiez de poser la question...)
je voudrais savoir si... / pourriez-vous m'indiquer la direction pour aller...

지금까지 조건법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을 살펴봄으로써 직설법으로 분류되고 있는 조건법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었다. 랑그 차원에서 조건법의 축

30) cf. Ibid., p.61

소된 chronotype ω 는 조건법이 과거의 기점과 연결되게 하여 과거에서의 미래라는 시제적 기능을 지닐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또한 미래의 chronotype α 와는 달리 가정의 초과량을 지니고 있는 조건법의 chronotype α 는 과거와의 기점이 사라지면 다양한 양상적 기능을 갖게 한다. 이러한 설명은 R. Martin의 신계적 조건법과 가능세계적 조건법에 해당하는 다양한 용법들을 담화 차원에서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R. Martin이 조건법의 용법들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언술 자체가 아닌 언술상황에서의 화자의 시각을 중요한 기준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건법의 사용을 언술의 화자와 결부시켜 보다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 다음의 III장에서는 조건법을 사용하는 화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조건법의 용법들³¹⁾을 다성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해 볼 것이다.

31) 참고로 Riegel (1994 : 316-320)이 제시한 조건법의 의미효과들을 모두 인용해보자면, le futur du passé dans le style indirect ou indirect libre, le conditionnel des historiens, l'hypothèse au potentiel et à l'irréel, la demande ou le conseil atténués, l'opinion illusoire, l'éventualité, l'imaginaire, le conditionnel de l'information incertaine, l'interrogation oratoire.

여기에 Wilmet(1998 : 411)가 첨가한 것들은, le conditionnel de discrétion, retenue, précaution ou hésitation, le conditionnel de jeu ou de fiction, le conditionnel de véhémence ou de protestation, le conditionnel des oui-dire, le conditionnel de circonspection, le conditionnel d'hypothèse explicite ou implicite, le conditionnel dilatoire ou atténuatif 등이 있다.

cf. P. Dendale(2001), p.13

Ⅲ. 조건법에 대한 다성 이론적 고찰

Ⅱ장에서 우리는 G. Guillaume과 R. Martin의 이론을 바탕으로 조건법의 다양한 의미가치들을 전통 문법적 입장이 가진 한계점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조건법을 단순히 시제적 기능과 양상적 기능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조건법을 구성하는 chronotype α 와 chronotype ω 의 특성을 통해 랑그에서 담화 차원까지 나타날 수 있는 조건법의 다양한 용법들을 체계적인 이론적 뒷받침을 통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본 장에서는, 조건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 위에서 조건법의 사용을 화자와 분리되어 있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표지로서 본 P. Haillet의 조건법 분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건법이 사용되는 이유와 실제 담화 속에서 조건법이 어떤 의미로 파악될 수 있는지를 좀 더 폭 넓은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P. Haillet의 조건법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의 분석에 있어 이론적 토대가 되는 다성 이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다성 이론 la théorie polyphonique

언어 분석에서 ‘다성³²⁾’이라는 용어 및 개념은 Bakhtine³³⁾에게서 유래

32) polyphonie는 ‘다음성’ 또는 ‘다성’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필자는 다음의 참고 문헌에 따라 ‘다성’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한다. 또한 본 논문의 다성 이론에 대한 설명도 다음의 참고 문헌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cf. 홍종화(1994), 「뒤크로의 논증·발화·다성 이론」, 『현대 불란서 언어학의 방법과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pp. 318-330

33) Ibid., p.319

한다. 그는 소설의 장르를 다양한 인물의 목소리가 교차하는 다음성 pluralité de voix의 장소로서 적합하다고 보았고 문학 텍스트 속에서 작가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가면을 쓰고 등장하는데 작가의 여러 상이한 ‘목소리 voix’를 찾아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때 작가의 여러 목소리들은 어느 하나가 다른 것들을 주도하거나 지배하지 않고, 동시에 말해진다고 한다³⁴⁾. 이 이론은 O. Ducrot에 의해서 문학 텍스트의 분석 뿐만 아니라 일상의 담화적 언술들의 분석을 위해 체계화 된다. 이는 전통적인 언어학에서의 언술 주체의 단일성 unicité 개념을 반박하고 언술 주체의 복수성 pluralité du sujet de l'énonciation의 개념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된다. 이러한 입장은 그 때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견해-자신의 것으로 제시된 언술 속에서 우리는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의 관점을 표현할 수 없다³⁵⁾-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대부분의 언술은 서로 다른 지위를 갖는 다양한 주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영역³⁶⁾이라고 여기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언어의 의미 분석 대상을 언술로 규정할 때, 주어진 언술행위 안에서는 언술의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언술 산출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1.1. 말하는 주체 sujet parlant, 화자 locuteur, 언술행위자 énonciateur

O. Ducrot는 언술행위를 하는 주체가 단일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말

34) O. Ducrot(1984), *Le dire et le dit*, Minuit, p.171

35) "On ne peut pas, dans un énoncé que l'on présente comme le sien, exprimer un point de vue qui ne serait pas le sien."

Ibid., p.173

36) cf. 홍중화, op.cit.,p.320

하는 주체와 화자 그리고 언술행위자라는 개념들을 구분하고 있다. 말하는 주체란 언술을 들리게 하기 위해서 발음기관을 움직여 말을 하거나 언술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문법규칙과 단어를 선택하여 글로 씌으로써 언술 자체를 산출해 내는 개체를 말한다. 즉 언술의 물리적 산출자, 언술의 경험적 주체 être empirique이다. 화자는 언술의 출현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언술에서 사용된 일인칭 문법적 주어 '나 je'에 의해 지시되는 대상으로서 일인칭 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모든 사행의 지주 support가 되는 담화의 주체 être de discours이다. 언술행위자는 언술의 의미가 대화자 상호간의 관계 및 위상을 재정립하고 변화시키는 구체적 언어 행위의 수행이라고 여겨질 때(예를 들면 단언, 약속, 명령 등) 언술을 통해 실현되는 구체적인 언어 행위의 책임자, 즉 언술행위 또는 발화내적 행위의 주체 sujet de l'acte de l'énonciation/illocutoire인 것이다.

언술행위자와 마찬가지로 화자도 언술의 근원 origine으로서 언술 주체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화자가 언술의 형식적인 측면, 즉 발언 자체만을 책임지는 자임에 반해 언술행위자는 언술의 내용적 측면, 발화 내적 행위를 책임지는 자이다. 따라서 언술행위자는 하나의 언술 안에 나타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관점을 주관한다. 화자는 언술에 자신의 관점 이외에도 또 다른 관점을 실을 수 있는데 이 때 다른 사람의 관점은 화자와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다성 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언술의 형식적 측면에서 말하는 화자는 항상 하나이지만 화자가 언술 안에 함축시켜 놓은 의미적 주체는 여럿일 수 있다는 것이다.

1.2. L-화자와 λ-화자

O. Ducrot는 화자를 다시 ‘문자 그대로의 화자 locuteur-en-tant-que-tel’인 L-화자와 ‘사회적 존재로서의 화자 locuteur-en-tant-qu’être-du-monde’인 λ -화자로 구분한다³⁷⁾. L-화자는 문장을 발화하는 장치로서의 언술 자체를 행하는 사람으로 언술행위의 실현 démonstration에 관여하는 인물이다. 즉 L-화자는 담화의 주체로서 ‘언술행위의 책임자 responsable de l’énonciation’가 된다. 반면에 λ -화자는 담화의 주체로서의 언어적 화자라기보다는 문자 그대로의 언어적 화자가 갖는 언술 주체로서의 기능 이외에도 언술의 산출에 관여하는 다른 여러 특성들을 소유하고 있는 ‘언술의 근원으로서의 인물 être du monde en tant que responsable de l’énoncé’을 가리킨다. λ -화자는 언술행위를 통해 세계에 관한 기술을 할 때 언술행위의 특징을 규명하는데 관여하는 인물이다.

37) cf. Ibid., pp.326-328

2. 다성의 표지로서의 조건법³⁸⁾

이제 P. Haillet가 다성 이론의 방법론으로 조건법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조건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P. Haillet가 사용하고 있는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2.1. 화자의 현실세계와 조건법의 의미적 불변소

Réalité du locuteur et invariante sémantique du conditionnel

화자의 현실세계란 담화가 언술행위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거나 그 이전에 일어난 사실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구성된다³⁹⁾.

(19) Max a vécu en banlieue.

(20) Le père de Max milite au PCF.

위의 예문 (19)에서는 언술행위 순간과 관련해서 이전의 사실로서 사행을 나타내며 (20)에서는 언술행위 순간과 동일한 시간에서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 P. Haillet는 두 예문들에서 사행이 화자의 현실세계에 통합되

38) 이번 장에서 다루고 있는 조건법에 대한 다성 이론적 접근은 P. Haillet의 아래 저서를 주로 참고한 것이며 설명에 필요한 예문들도 재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cf. P. Haillet(2002), *Le conditionnel en français : une approche polyphonique*, Ophrys, pp.1-99

39) 'nous dirons que la réalité du locuteur est constituée par ce que son discours représente comme des faits contemporains et/ou antérieurs par rapport au moment de l'énonciation.'

cf. Ibid.,p.8

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면

(21) Max déposera une demande de logement.

여기에 제시된 사행은 화자의 현실세계에 통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사행이 언술행위 순간과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도 아니며 언술행위 순간 이전에 일어난 사실도 아닌 미래의 시간에 실현될 수도 있는 사행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부정문으로 나타난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22) Léa n'a pas vécu à Montpellier.

(23) Léa ne dira rien.

위와 같은 시각에서 사행 *Léa-ne-pas-vivre-à-Montpellier*는 언술행위 순간에서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므로 화자의 현실세계에 통합되는 것으로 재현된다. 반면, 사행 *Léa-ne-rien-dire*는 미래의 시간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화자의 현실세계에 통합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앞의 예문들을 통해 볼 때 화자의 현실세계에 통합된 것으로서 사행을 제시하는 언술들은 *현재나 복합과거*와 같은 시제를 사용해서 환언문 *paraphrase*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또 다른 예문을 보도록 하자.

(24) Le père de Max a, dit-on, milité au PCF.

예문 (24)에서 사행 *Le-père-de-Max-militer-au-PCF*는 *복합과거*를

사용해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it-on’의 첨가로 인한 의미효과로 화자의 현실세계에 통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제시된다고 P. Haillet는 설명한다⁴⁰⁾.

다성 이론은 하나의 언술 안에서 단일하지 않은 언술 주체들이 등장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서 출발한다고 하였다. P. Haillet는 위의 예문 (24)에 두 언술행위자가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로는 *Le père de Max a milité au PCF*라는 내용과 관점이 일치하는 언술행위자와 두 번째는, 이처럼 표현된 관점에 ‘dit-on’을 사용함으로써 언술의 내용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언술행위자이다. 여기서 화자는 사행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는 언술행위자에 해당하며 언술의 내용에 책임을 지고 있는 첫 번째 언술행위자와 구분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언술 안에 등장하는 두 언술 주체를 통해 다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P. Haillet는 조건법을 사용함으로써 사행을 화자의 현실세계에 통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조건법으로 된 언술들에서 나타나는 의미적 불변소 *invariant sémantique*에 관계되는 것이다⁴¹⁾.

(25) *Le père de Max aurait milité au PCF.*

예문 (25)는 예문 (24)와 의미의 해석에 있어서 같은 효과를 산출하고 있다. 이 언술에서도 두 언술행위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Le père de Max a milité au PCF*와 관점이 일치하는 언술행위자와 이러한 관점에 거리를 두고 *Le-père-de-Max-militer-au-PCF*라는 사행을 화자의 현실

40) cf. Ibid.,p.8

41) cf. Ibid.,p.9

세계에 통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제시하는 언술행위자가 있다.

조건법에 대한 이러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P. Haillet의 조건법 분석을 통해 조건법의 용법들이 화자 및 화자의 현실세계와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2. 시제적 조건법에 나타난 언술 주체의 복수성

과거에서의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적 조건법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사행을 언술행위 순간과 관련하여 위치시키지 않고 과거의 한 지표 *repère passé*에서 후행하는 것으로 나타내는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II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이다. 따라서 조건법을 사용하는 화자는 사행을 자신의 현실세계와 관련해서 나타내지 않는다.

(26) Ils me disaient que la fête aurait lieu dans le parc municipal.

예문 (26)은 다음과 같이 시제적 조건법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우언법을 이용한 미래 *futur périphrastique*로의 환언문인 «*aller + inf*»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⁴²⁾

(26)' Ils me disaient que la fête allait avoir lieu dans le parc municipal.

우리는 사행에 대한 해석에서 화자의 현실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표시들이 없기 때문에 파티가 열렸는지, 열리지 않았는지 혹은 열리고

42) Ibid.,p.10

있는지 열리지 않고 있는지를 결정할 수가 없다. (26)에서 조건법은 사행을 *Ils me disaient*라는 과거의 지표에서 후행하는 것으로서 나타내는 효과만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다성의 접근 방식에서는 이 언술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P. Haillet는 이 언술에 등장하는 두 언술행위자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지금의 나 moi-maintenant’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당시의 그들 eux-alors’에 해당되는 것인데 (26)에서 화자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언술행위자이며 두 번째 언술행위자는 이전의 언술행위에 대한 근원으로서 나타난 또 하나의 분리된 화자이다⁴³⁾.

이처럼 시제적 조건법이 나타내는 사행은 화자의 현실세계에 통합되지 않은 것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특징은 화자가 조건법을 통해서 사행을 현실세계에 통합된 것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행의 실현 여부를 암시해 주는 문맥과 함께 쓰일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27) Ils ont cru que la restauration de l’habitat résoudrait tous les problèmes. L’expérience a montré que ça ne suffisait pas.

예문 (27)에서 우리는 *L’expérience a montré que ça ne suffisait pas*라는 문장이 함께 제시되었기 때문에 화자의 현실세계에서 사행 *résoudre*가 실현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된다.

2.2.1. 시제적 조건법의 주관적 용법

P. Haillet는 시제적 조건법이 주관적 용법과 객관적 용법으로 구분될 수

43) Ibid.,p.10

있다고 설명한다. 시제적 조건법의 이러한 구분 방법은 H. Korzen과 H. Nølke⁴⁴⁾에게서 도입된 것이며 언술행위 순간 이전의 한 과거 지표로부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행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식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즉 과거의 순간에 위치한 주인공들 protagonistes이 미래에 일어나게 될 사행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주관적 용법에 해당되며 객관적 용법은 서술자 narrateur의 관점에 일치되는 것이다. 시제적 조건법의 주관적 용법과 객관적 용법은 화자가 사행을 자신의 현실세계와 관련시켜 나타내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조건법의 용법들을 분석하는데 있어 고려할 만한 것이다.

(28) Max a dit qu'il viendrait nous chercher à la gare.

(29) Les putschistes pensaient que tout se passerait bien.

예문 (28)과 (29)에서 *Je viendrai...*, *Tout se passera bien*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행위들은 언술의 화자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언술의 화자인 '지금의 나 moi-maintenant' 이전의 한 순간에서 사행을 미래로 예상한 '그 당시의 Max'와 '그 당시의 putschistes'에게 부여된 것이다.

주관적 용법은 주어 인칭 대명사 'je-나'로 지시되는 보고 담화에서도 나타난다. 즉 사행을 자신의 미래로 투영 projection 시키는 '그 당시의 나'에 해당하는 화자와 조건법으로 나타난 언술의 산출자 auteur로서의 '지금의 나'에 해당하는 화자 사이의 구분이 나타나게 된다.

(30) J'étais convaincu qu'un jour, ils feraient appel à moi.

44) H. Korzen et H. Nølke(1990), "Projet pour une théorie des emplois du conditionnel" in O. Halmøy, A. Halvorasen et L. Lorentzen(eds).

예문 (30)에서도 언술의 산출자로서의 L-화자⁴⁵⁾와 언술의 대상인 λ -화자 사이의 구분이 이루어진다. 즉 ‘당시의 나 moi-alors’를 λ -화자로 여기며 *eux-faire-appel...*이라는 사행을 미래로 투영시키는 근원으로서 여기는 것이다. 이전의 순간에서 뭔가를 생각했던 존재로서의 또 다른 관점이 부여되어 나타나는 곳은 L-화자인 ‘지금의 나’이다.

이처럼 시제적 조건법의 주관적 용법은 하나의 언술 안에 사행에 대한 두 가지 관점 point de vue을 도입시킨다. 즉 조건법을 사용하는 화자인 ‘지금의 나’의 화자에게 또 하나의 보충적인 관점을 부여하게 된다.

2.2.2. 시제적 조건법의 객관적 용법

시제적 조건법의 객관적 용법은 사행을 ‘지금의 나’에 해당하는 화자의 현실세계에 통합시키면서 과거의 순간인 ‘그 때 alors’에서 후행하는 것으로 나타내는데 사행이 과거의 그 순간에서는 누구에 의해서도 예상되거나 상상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주관적 용법과 달리 사행의 실현 여부를 알고 있는 언술의 화자 이외에는 어떤 인물도 과거의 순간에 이 사행이 미래에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데 초점이 맞춰진다⁴⁶⁾.

(31) Margarete entra à Ravensbruck le 2 août 1940. Elle n'en sortirait pas avant avril 1945.

예문 (31)에 나타난 화자의 관점은 이야기 속의 사건의 흐름을 모두 알

45) 본 논문 p.26 참고

46) Ibid., p.276

고 있는 서술자의 관점과 일치한다. 위의 예문은 화자의 현실세계와 관련해서 *n'allait pas en sortir avant...*으로 해석되는 환언문과 *n'en est pas sortie avant...*에 해당하는 환언문들을 허용한다.

예문 (31)이 독립절에서 사용된 시제적 조건법의 객관적 용법이라고 한다면 다음의 예문은 종속 접속사절에서 나타난 시제적 조건법의 객관적 용법으로 분류될 수 있다.

(32) Tout à sa griserie de l'élection présidentielle, Jacques Chirac n'avait, lui non plus, pas imaginé qu'éclaterait le scandale des loyers sur mesure du parc immobilier de la Ville, ni le cataclysmes electoral de juin 1995.

사행 *éclater le scandale*은 화자의 현실세계에서 실제로 실현된 것이지만 기술된 사실들이 위치하고 있는 과거 속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과문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이 언술의 화자인 서술자만이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어 인칭 대명사 'je'로 지시된 담화에서 나타난 객관적 용법의 예를 살펴보자.

(33) J'en ai pris, une fois, deux fois...j'étais loin de me douter que je finirais par être complètement accro, que ça se terminerait par un séjour à l'hosto.

A-화자인 '당시의 나'는 과거의 순간에 앞으로 다가올 것을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예문에서는 사행 *moi-finir-par...*와 *ça-se-ter-*

*miner-par...*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두 사행들은 *j'étais loin de me douter*에 의해 구성된 시제적 지표에 후행하면서 동시에 언술의 산출자인 화자의 현실세계에 통합된 것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이 두 관점이 부여되는 곳은 바로 언술의 산출자로서의 L-화자이며 첫 번째 관점인 λ-화자는 *j'allais finir par...* , *ça allait se terminer par...*라는 환언문을 가능하게 하고 두 번째 관점의 L-화자는 *j'ai fini par...* , *ça s'est terminé par...*라는 환언문을 가능하게 해 준다.

2.3. 양상적 조건법에 나타난 언술 주체의 복수성

이제 시제적 조건법과는 달리 과거 기점과의 연결 없이 사용되는 조건법의 용법들을 ‘사행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사이의 분리효과 *effet de dissociation entre deux points de vue sur le procès*⁴⁷⁾’라는 측면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P. Haillet는 시제적 조건법과 구분되는 양상적 조건법을 언술적 이타성의 조건법 *conditionnel d'altérité énonciative*과 가정의 조건법 *conditionnel d'hypothèse*으로 구분해서 분석하고 있다.

2.3.1. 언술적 이타성의 조건법

P. Haillet가 분석하는 언술적 이타성의 조건법의 특징은 화자가 채택하는 관점이 *현재나 복합과거* 시제로의 환언문을 받아들이는 관점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설정된 표현 *version mise à distance*’을 구성하는데 있

47) P. Haillet, op.cit.,p.75

다고 여기는 것이다⁴⁸⁾. 예술적 이타성의 조건법이 사용된 예술에서는 사
행에 대한 두 가지 관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서로 다른 두 화자
들에게 부여되느냐 아니면 동일한 화자에게 부여되느냐에 따라 두 개의
하위범주로 나뉘게 된다.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서 그 차이를 자세히 분석
해 보도록 한다.

2.3.1.1. 구별되는 다른 화자의 암시

(34) François Mitterrand devrait se rendre dans les pays Baltes à
la mi-mai.

여기에 제시된 예문은 *François Mitterrand doit se rendre dans les
pays Baltes à la mi-mai*라는 단언과 거리를 두고 설정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조건법이 사용됨에 따라 예술의 내용에 대하여 거리가 설정된 것이고
화자는 예술의 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단지 보고를 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II장에서 살펴본 조건법의 용법들 중에서 화자가 불
확실한 정보를 전달할 때 생기는 의미효과라고 정리한 바 있다. 즉 조건
법의 사용으로 화자는 자신의 예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⁴⁹⁾. 이
러한 조건법의 용법은 다음과 같은 통사적인 구조에서도 나타나는데 한
정관계사절 안에서 사용된 조건법은 어떠한 의미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48) Ibid.,p.75

49) Ibid.,p.77

(35) Mais la campagne savamment orchestrée contre celui qui aurait bénéficié de complicités en haut lieu risque d’avoir un effet boomerang.

→ qui a, d’après ce qu’on raconte, bénéficié de complicités en haut lieu

여기서 *celui qui a bénéficié*의 사용은 화자가 과거의 사건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지는 효과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화자는 조건법을 사용함으로써 *d’après ce qu’on raconte*(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같은 의미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즉 화자는 언술의 내용에 대한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단지 보고하는 역할만을 담당한다. 이처럼 조건법의 사용은 *celui qui a bénéficié*로 환언되는 단언의 근원과 조건법을 사용하는 화자 사이의 분리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한다.

그런데 P. Haillet는 문맥에 따라서는 조건법을 사용함으로써 거리를 설정하여 제시한 언술에 대해서 언술의 화자가 사행에 대한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태도는 «신중함 *prudence*», «불확신 *incertitude*», «의심 *doute*»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단순한 유보 *simple réserve*»에서 «이의제기 *contestation*»라는 극단으로 까지 규정될 수 있다⁵⁰). 다음의 예문에서 우리는 화자가 언술의 내용에 거리를 두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사행에 대한 태도를 내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6) Que sont-ils devenus depuis? Selon certaines sources, ils ser-

50) Cette attitude peut être qualifiée de « simple réserve » à un extrême et de « contestation » à l’autre-en passant par « prudence », « incertitude », « doute », etc. cf. Ibid.,p.80

aient toujours détenus, mais selon d'autres, ils auraient été relâchés par la suite, un à un.

예문 (36)에서 화자는 언술을 제시하는데 있어 접속사 *mais*를 사용함으로써 첫 번째 언술보다는 두 번째 언술을 더 인정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조건법의 사용으로 인해 우리는 두 언술 중 어느 하나를 화자의 현실세계에 통합된 실제적인 사실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화자가 제시하는 언술의 내용은 화자와 구분되는 근원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며 단순한 유보로서 규정된다. 반면, 다음의 예문에서는

(37) C'est au lendemain de sa démission que Philippe Guillaume laisse exploser sa haine contre l'actuel pouvoir, stigmatisant exagérément « l'ordre socialiste » qui, à l'en croire, régnerait désormais « à Radio-France, à RMC, à l'AFP, à Canal-Plus, à la SFP, etc. »

à l'en croire(그의 말을 믿는다면), *sa haine contre l'actuel pouvoir*(현 세력에 대한 그의 반감), *exagérément*(과장해서)과 같은 문장의 요소들과 조건법의 결합으로 인해 화자는 *l'ordre socialiste règne désormais à Radio-France, à RMC, à l'AFP, à Canal-Plus, à la SFP, etc.*라는 단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단언의 근원은 Philippe Guillaume이라고 화자에 의해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조건법을 사용함으로써 화자는 언술에 대해 거리를 설정하고, 언술의 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는 단순한 보고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살펴본 유형의 조건법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단언된 것이지만 화자에 의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말들을 다시 취하는데 사용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조건법으로 이루어진 언술에서 암묵적으로나(예문 34, 35) 명시적으로(예문 36, 37) 언술의 화자와 분리된 또 다른 화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2.3.1.2. 동일한 화자의 이중분리

(38) Je n'ai perçu jusqu'à aujourd'hui que l'aspect caricatural et passablement grotesque de ce multiculturalisme. Je serais enclin à ne pas lui trouver d'avenir.

예문 (38)에서 *Je serais enclin à*는 *Je suis enclin à*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서 탈현동화 désactualisation의 효과⁵¹⁾를 갖는다. 탈현동화의 효과를 산출하는 조건법의 용법들은 화자 자신이 만들어낸 단언에 일정 거리를 두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Damourette와 Pichon은 toncal futur⁵²⁾의 용법들을 관찰하면서 자기 자

51) «Désactualisation»의 의미 효과를 산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반과거의 용법 «Je voulais un renseignement»과 단순미래의 용법 «J'avouerai que je ne connais pas la réponse à cette question»을 예로 들어보자. 이 언술들은 각각 «Je veux un renseignement»과 «J'avoue que je ne connais pas la réponse à cette question»으로 대치될 수 있는데 이것들은 현재형에 해당하는 단언의 «탈현동화된 표현»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해석되며 이때의 사행은 화자의 «지금 maintenant»에서 동시대의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는게 아니라 첫 번째 예문에서는 언술행위 순간 이전의 antérieur 것으로, 두 번째 예문에서는 언술행위 순간에서 «아직 다가올 것 encore à venir»으로 나타나게 됨으로써 덜 «직접적이고 directe» 덜 «단호한 catégorique» 것으로서 해석되게 한다.

cf. Ibid.,p.88

52) «toncale»은 라틴어 «tunc=alors»에서, «noncale»은 «nunc=maintenant»에서 파생된 말

신이 만들어낸 단언에 대한 완곡한 표현과 출처가 본인이 아닌 보고하는 단언에 대한 거리설정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Le toncal futur는 이를테면 뉴스 안에서 다양한 뉘앙스로 noncale보다 단언들을 덜 노골적으로 전달하면서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단언이 다른 사람에게서 주어진 것일 때는 후에 확인한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나타내며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단언에 관계될 때는 제안, 충고, 희망을 나타내는 문장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당돌함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toncal futur를 사용한다.⁵³⁾ »

부연 설명을 하자면, 조건법이 타인에게 책임이 부여된 단언에 관계될 때는 그 언술의 내용에 대해 나중에 확인한다는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자기 자신에게 속한 단언에 관계될 때는 다른 사람에게 제안이나 충고를 할 때 또는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당돌함을 줄이기 위해 조건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탈현동화의 효과를 산출하는 조건법의 용법들은 화자 자신이 만들어 내는 언술에 일정한 거리를 설정하는 특수한 담화적 메카니즘에 근거하여 «*aller + inf*» 로의 환언문을 허용

이다. 따라서 «toncal futur»는 조건법에 해당된다.

cf. Ibid.,p.90

53) «Le toncal futur s'emploie aussi pour adoucir les affirmations en les transportant en quelque sorte dans une actualité moins brutalement présente que la noncale, d'où diverses nuances : s'il s'agit d'une affirmation attribuée à autrui, le toncal futur exprime qu'on ne l'admet que sous bénéfice d'inventaire ; s'il s'agit d'une affirmation à soi, on emploie le toncal futur pour restreindre son audace dans la présentation d'une proposition, d'une offre, d'un conseil, d'un désir.»

cf. Ibid.,p.90 에서 재인용, Damourette et Pichon(1936), *Des mots à la pensée. Essai de grammaire de la langue française*, Editions d'Artrey [tome VI], p.441-442

하지 않으며 접속사 *si*와 함께 사용되는 가정의 조건법과도 구별되는 것이다.

(39) *Etes-vous paresseux?*

-*J'aurais une fâcheuse tendance à l'être.*

예문 (39)에서 조건법으로 이루어진 사행은 화자의 현실세계에 통합된 것으로 재현된 현재형 단언 *J'ai une fâcheuse tendance à...* 로 대치될 수 있다. 사행의 시간적 차원에서 보자면 사행 *moi-avoir-tendance-à...*는 화자의 '지금 *maintenant*'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으로 제시된다. 여기서 나타나는 탈현동화의 효과는 두 관점이 분리된 것에서 기인하는데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J'ai une fâcheuse tendance à...*라는 단언에 해당되는 관점이 조건법으로 되어 있는 언술의 화자이면서 산출자와 거리를 두고 있다.

다음은 조건법의 사용으로 인해 탈현동화의 효과가 산출되는 예문들이다.

(40) *Je voudrais vous faire part de mes réflexions sur l'interview de Michel-David Weill.*

(41) *Il faudrait prévenir Jacques au plus vite. Tu l'appelles maintenant?*

(42) *Il faut dire que l'école va doucement vers sa cinquantaine. Et qu'elle aurait bien besoin d'un sacré lifting.*

예문 (40)에서 *moi-vouloir-vous-faire-part-de...*는 언술행위 순간과 관

런되어 화자의 현실세계에 통합된 것으로서 제시된 사행이다. 현재형 단언 *Je veux vous faire part de...*로 대체될 수 있으며 *Je voudrais*는 문맥에 따라 고상한 어법 *registre soutenu*으로서 특히 고어풍의 어법에서는 *J'aurais voulu* 또는 조건법 과거의 제 2형인 *j'eusse voulu*와 대체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예문 (40)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40)' *J'aurais voulu vous faire part de mes réflexions sur l'interview de Michel-David Weill.*

여기서도 조건법 과거의 사용은 현재형 단언에 있어 탈현동화의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vouloir* 동사의 조건법 과거형 '*J'aurais voulu*'가 다음의 예문에서는 위와 같은 효과를 산출할 수 없음을 쉽게 식별해 낼 수 있다.

(43) *Je ne connaissais pas du tout l'univers de l'école parce que je l'ai quittée très tôt, à 13 ans. Ma véritable école, à Châteauroux, c'était la vie. Pourtant, j'étais passionné, j'aurais voulu apprendre, être protégé par une école, je n'ai jamais pu.*

사행 *moi-vouloir-apprendre, moi-vouloir-être-protégé-par-une-école* 은 과거의 순간에 위치한다. 따라서 *j'aurais voulu apprendre, être protégé par...*는 *je voudrais apprendre, être protégé par...*나 *je veux apprendre, être protégé par...*로 대체될 수 없다. 따라서 예문 (43)에서는 조건법 과거의 사용이 현재형 단언 *je veux apprendre, être protégé par*에 있어서 탈현동화의 효과를 산출해 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조건법에 있어서 화자의 이중분리에 해당하는 유형의 언술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로 다른 조건법의 의미효과들과 구분지을 수 있을 것이다.

- «*allait + infinitif*»로 환언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 가정의 *si*와 함께 사용되지 않으며, 가정의 *si*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 조건법이 사용된 문맥 안에서 현재형 단언문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는 현재형 단언문의 완곡한 표현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현재형 단언에 *paraît-il*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

우리는 P. Haillet의 조건법 분석을 통해 언술적 이타성 *altérité énonciative* 이라는 개념은 사행에 대한 두 관점들 사이의 분리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화자의 이중분리는 서로 다른 두 화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동일한 화자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 조건법으로 된 언술을 산출하는 언술의 근원으로서의 화자인 L-화자와 언술의 대상인 λ -화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개념이다. 현재형으로 된 단언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화자는 λ -화자이며 L-화자는 이 λ -화자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탈현동화의 효과는 바로 이러한 유형의 조건법의 용법들에서 나타난다.

2.3.2. 가정의 조건법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조건법은 가정의 틀 *cadre*⁵⁴⁾과 함께 사용된다는

54) 가정의 틀이란 가정 체계 *système hypothétique*에서 «*si p*»를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P. Haillet가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si p, q»의 형식으로 나타나며 q에서 조건법으로 나타난 사행을 «si p»에서 분리시켰을 경우 현재형이나 복합과거형의 단언문으로 환언할 수 있는 의미효과를 산출하는 구문들과 또는 그것이 불가능한 구문들에 관계된다. 여기서 조건법으로 나타난 사행은 화자의 현실세계에 통합되지 않은 것이며 상상된 것으로서 제시된다.

2.3.2.1. «Si p, q» et «~q»⁵⁵⁾

(44) Il serait pauvre, il ne roulerait pas en Porsche.

(45) C'est grâce au Premier ministre que nous avons fini par trouver un compromis. S'il n'était pas intervenu, nous n'aurions pas obtenu satisfaction.

예문 (44)는 가정의 조건절인 *s'il était pauvre*가 조건법으로 나타난 유형의 언술이다. 가정의 틀인 *lui-être-pauvre*는 화자의 현실세계와 반대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q»인 동시에 «~p»이기도 하다. 즉 화자에 의해 산출된 언술은 화자의 현실세계에서 *il n'est pas pauvre, il roule en Porsche*라는 현재형 단언문으로 환언될 수 있다.

예문 (45)에서는 조건법 과거가 사용되었으며 마찬가지로 화자의 현실세계에서의 사실과 반대가 되는 사행을 가정의 틀 안에서 나타내게 된다. 즉 이 언술의 화자는 조건법을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는 사행에 대해서 비현실적이라는 관점을 취하면서 화자로 등장하며 이와 동시에 화자의 현실세계와 관계해서 *nous avons obtenu satisfaction, parce qu'il était intervenu*라

55) 이는 «si p, q» 구문의 q절에서 조건법으로 표현된 사행이 화자의 현실세계와 관계했을 때 현재형이나 복합과거로의 환언문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환언될 수 있는 복합과거형 단언문의 근원으로서의 관점도 표명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화자가 화자의 현실세계에서 p에서의 가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는 것을 알고 가정할 경우에, q에서 조건법으로 제시된 사행은 비현실적인 의미효과를 산출하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음은 화자의 현실세계에서 는 비현실성의 의미효과를 갖지만 현실세계 밖⁵⁶⁾에서는 예상될 수도 있는 우발성을 나타내는 용법에 관계되는 예문이다. 이는 조건법 단순형이 현재 와 미래를 형태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조건법 단순형으로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정을 모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의미효과이다⁵⁷⁾.

- (46) Commentaire d'un ministre de la gauche plurielle à propos des affaires de la Mairie de Paris : «On n'a pas intérêt à ce que Chirac soit mis en cause. Si c'était le cas, nous serions dans une situation à l'américaine. Or, pour réussir notre politique, nous avons besoin de stabilité.»

사행 *nous-être-dans-une-situation-à-l'américaine*은 화자의 현실세계와 관계해서는 반대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위 언술은 화자의 현실세계에서는 *ce n'est pas le cas* 또는 *Chirac n'est pas mis en cause, nous ne sommes pas dans une situation à l'américaine*.으로의 현재형 환언문을 허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이 언술행위 순간 이후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위

56) P. Haillet가 말하는 현실세계 밖이란 화자에게 있어서 현재나 과거가 아닌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다.

57) 다음의 예문과 같이 조건법 단순형은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가정이 모두 가능하다.

S'il faisait beau maintenant, j'irais me promener.(비현실성의 의미효과)

S'il faisait beau demain, j'irais me promener.(우발성의 의미효과)

치하게 되면 예상할 수 있는 우발성 *éventualité envisageable*으로 제시된다. 이처럼 미래 속에 위치한 우발성의 의미효과와 현재 사실에 대한 비현실성의 의미효과와의 결합은 오늘이 아닌 내일의 경우에서라면 가능한 것이다.

2.3.2.2. «Si p, q» et ni «q», ni «~q»

이 범주에 속하는 가정의 조건법은 앞서 «Si p, q» et «~q» 유형에서 살펴본 것과는 달리 q에서 조건법으로 표현된 사행이 가정의 틀에서 분리되었을 때 화자의 현실세계와 관련하여 현재형이나 복합과거형으로의 환언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화자에 의해 조건법으로 나타난 사행은 화자에 의해 미래에서 상상된 것이기 때문에 화자의 현실세계와는 대조를 이루지 못한다.

(47) Une chose est claire, désormais : si le maire sortant était réélu, il le devrait à des appuis douteux et à des financements inavouables.

→ *⁵⁸⁾ il le doit à des appuis douteux et à des financements inavouables

→ * il ne le doit pas à des appuis douteux et à des financements inavouables

(48) Si on entreprenait de créer l'ONU dans les conditions actuelles, on n'y parviendrait pas.

→ * on y parvient / * on n'y parvient pas

58) 해당되는 언술로 환언될 수 없음을 말한다.

예문 (47)과 (48)은 모두 조건법으로 표현된 사행이 가정의 틀에서 분리되었을 경우에 현재형이나 복합과거형으로의 환언문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위의 두 예문은 화자의 현실세계에 통합되지 않은 미래에서 예상된 가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예문 (47)의 경우에는 가정의 내용이 미래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예문 (48)의 경우는 문맥적 상황을 통해 볼 때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우발성이 미래에서 예상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서 간주해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P. Haillet는 이러한 유형의 가정의 틀은 미래에 예상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발성과 실현 불가능한 가정 사이에서 서로 다른 개연성의 정도 *degrés de probabilité*를 나타내는 일종의 연속체 *continuum*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자는 자신이 구축한 주관적인 가정의 틀과 연관시켜 사행을 나타내는데 일치되는 하나의 관점을 채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⁵⁹⁾.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조건법이 나타내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2.3.2.3. «Si p, q»와 탈현동화의 효과

우리는 앞의 2.3.1.2.에서 화자의 이중분리 현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조건법의 ‘탈현동화 효과’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는 «si p, q» 유형의 가정의 조건법 안에서 나타나는 탈현동화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59) Ibid., pp.47-48

(49) Si j'avais à me prononcer personnellement, je qualifierais ce score de très honorable.

(50) S'il fallait résumer d'un mot ce livre séduisant et magistral, où se condense une riche expérience, je choiserais celui d'équité.

위의 예문들은 «*aller + inf*» 나 «*present + paraît-il*»⁶⁰⁾로의 해설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가정의 틀 «*si p*»에서 분리된 사행을 대상으로 한 현재형 환언문 *je ne qualifie pas ce score de très honorable, je ne choisis pas celui d'équité* 등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행 *moi-qualifier-ce-score-de-très-honorable*은 *Si j'avais à me prononcer personnellement*이라는 가정의 틀과 관련하여 화자의 현실세계에 통합되지 않은 상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q*는 화자를 포함하고 있는 발화행위 *acte d'énonciation*이며 «*si p*»는 이러한 행위가 고려되는 조건을 나타낸다. 특정한 조건 안에서 상상된 것으로 제시되는 이러한 언술행위는 그 언술의 근원이 화자이거나 화자가 아닌 타인이라고 하더라도 화자를 그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위의 예문들이 *Pour exprimer mon avis personnel, je qualifie ce score de très honorable.*과 *Pour résumer d'un mot ce livre, je choisis celui d'équité.*와 같은 현재형 단언으로 대치될 수 있는 것도 이 예문들이 '탈현동화된 표현'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이유이다. 'Ce score'에 'très honorable'이라는 평가를 부여하는 것과 'résumer d'un mot ce livre'를 위해 'équité'라는 단어를 선택한 행위는 화자의 상상 속에서 가능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화자의 현실세계에 통합

60)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환언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ex) Ils feraient même brûler de l'essence dans de grands bidons.

→ Ils font même, paraît-il, brûler de l'essence dans de grands bidons.

된 것으로 보인다. 화자가 «si p, q»의 구조를 사용한 것은 언술을 산출함으로써 사행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사행을 «si p»라는 조건의 실현화 réalisation에 종속시킴으로써 ‘여전히 다가올 encore à venir’ 것으로서 나타내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위의 두 예문들은 현재형 단언들보다 사행을 ‘덜 직접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효과를 갖는다.

지금까지 다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P. Haillet의 조건법 분석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실제 담화 안에서 조건법이 언술 주체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효과들을 산출해 낼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으며 조건법의 사용에 대한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2.3.2.2.에서 살펴본 «Si p, q» et ni «q», ni «~q» 유형의 가정의 조건법에서는 가정의 내용이 화자의 현실세계와 대조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사행에 대해 현재형이나 복합과거로 환언될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없었다. P. Haillet는 이에 대해서 화자는 사행을 자신이 구축한 주관적인 가정의 틀과 연관시켜서 나타내며 그와 일치되는 하나의 관점만을 채택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유형의 조건법은 언술 주체의 분리현상과 관련된 다성 이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P. Haillet의 분석 방법이 조건법의 의미가치를 기술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시도가 되었음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다성 이론을 적용하여 조건법의 모든 용법들을 설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건법의 용법들을 언술 주체와 연관시켜 설명하는 과정에서 화자 locuteur, 산출자 auteur, L-화자 locuteur-en-tant-que-tel, λ-화자 locuteur-en-tant-qu'être-du-monde, 언술행위자 énonciateur, 관점 point de vue 등과 같이

다양한 개념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P. Haillet는 관점이라는 용어를 언술행위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설정하고 사용하는데 또 어떤 때는 관점이 분리되는 것을 화자의 분리라고 설명하면서 관점이라는 용어와 화자의 개념 또한 동일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P. Haillet는 산출자 *auteur*라는 용어를 언술의 화자, 특히 L-화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산출자라는 용어는 언술의 출현 뿐만 아니라 언술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인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P. Haillet의 용어 사용에 있어서 이론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언술의 주체를 명명하는 용어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위상 *statue*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A. Culioli의 이론을 토대로 사행이 구축되는데 필요한 언술행위 상황의 주체 변수 S와 시간 변수 T와 연계시켜 조건법을 상위언어로 형식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이에 앞서 지금까지 살펴본 P. Haillet의 조건법 분석 방법과 R. Martin의 조건법에 대한 설명 방법을 조건법의 대표적인 용법들을 가지고 도표를 통해 간단히 비교하여 정리해 보도록 한다.

	R. Martin의 설명방법	P. Haillet의 설명방법
시제 조건 법	<p>ex) Max a dit qu'il viendrait nous chercher à la gare.</p> <p>→신계적 조건법의 하나로 설명함. 화자는 자신의 신계(u) 밖에 있는 변화된 신계, 즉 타자의 신계(u'), 즉 주어의 시각에서 사행을 포착함.</p>	<p>ex) Max a dit qu'il viendrait nous chercher à la gare.</p> <p>→다성 이론의 방법론에서 두 언술행위자들이 등장한다고 설명함.</p> <p>①'지금의 나'에 해당하는 화자로 조건법으로 된 언술을 산출하는 언술행위자</p> <p>②'그 당시의 그'에 해당하는 화자로 이전 언술행위의 근원으로 나타나는 언술행위자</p>
양상 적 조건 법	<p>ex) Le père de Max aurait milité au PCF.</p> <p>→신계적 조건법의 하나로 설명함. 화자가 확신하지 못하는 정보를 전달할 때는 화자 자신의 신계(u)가 변화되어 타자의 신계(u')로 진이됨. 신계의 변화는 명시적으로 언급될 수도 있고 특별한 언급이 없이 문맥을 통해 암시될 수도 있음.</p>	<p>ex) Le père de Max aurait milité au PCF.</p> <p>→언술적 이타성의 조건법에 해당하며 구별되는 다른 화자들이 등장한다고 설명함.</p> <p>①조건법을 사용함으로써 Le père de Max a milité au PCF. 라는 복합과거형 단언에 대해 거리를 두고 언술의 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보고를 하는 화자</p> <p>②Le père de Max a milité au PCF.와 관점이 일치하며 이러한 단언의 근원으로서, ①의 화자와 구별되는 화자</p>
	<p>ex) S'il était pauvre, il ne roulerait pas en Porsche.</p> <p>→가능세계적 조건법으로 설명함. «Si p, q» 구문에서 화자는 «si p»의 가능세계의 영역에서 q에 나타나는 사행이 진이 될 수 있거나 진이라고 상상함. 화자의 신계에서 ~p라고 알고 있으면 p는 반사실적 신계(\bar{u})와 일치함.</p>	<p>ex) S'il était pauvre, il ne roulerait pas en Porsche.</p> <p>→가정의 조건법을 사용하는 화자는 사행에 대한 두 관점을 취하게 된다고 설명함.</p> <p>①가정의 틀 안에서 사행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관점을 취함.</p> <p>②가정의 틀에서 분리된 화자의 현실세계에서 il n'est pas pauvre, il roule en Porsche.라고 환언될 수 있는 단언문의 근원으로서의 관점을 취함.</p>
방법 론 비교 분석	<p>두 이론 모두 조건법의 의미효과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언술 상황의 화자를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고 있다. R. Martin은 조건법을 사용하는 화자가 인식하는 가능세계와 신계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조건법의 용법들을 분류하여 설명하였고 P. Haillet는 조건법을 사용하는 화자가 사행을 화자의 현실세계에 통합시키지 않으면서 제시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언술 주체의 복수성의 개념과 연관시켜 설명하였다.</p>	

IV. 조건법에 대한 언술행위론적 접근

이 장에서는 A. Culioli의 언술행위이론⁶¹⁾ la théorie d'énonciation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 조건법을 언술행위 상황을 구성하는 시간 temps 변수 T와 주관적인 변수인 주체 S와 관련시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본다. 이는 조건법의 용법들을 기술하는데 있어 체계적인 형식화를 통해 조건법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 언술행위이론의 방법론

언술행위이론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E. Benveniste의 언술행위이론, O. Ducrot의 화용론 등의 학설들을 생각할 수 있다. 언술행위이론은 과거 구조주의 언어학의 랑그 langue에 관한 전통적인 연구방식에서 벗어나 언어활동 langage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거기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연구방법이 산출된다. E. Benveniste는 언술행위를 개인적인 사용이라는 행위에 의한 랑그의 작동⁶²⁾ la mise en fonctionnement de la langue par un acte individuel d'utilisation이라고 정의하고, 화용론에서는 언어활동을 담화산출행위 l'activité de l'instantiation du discours로 파악하였다. 한편 A. Culioli는 언어활동을 표상을 구축하는 상징활동

61) 본 장에서 소개하는 언술행위이론은 다음의 참고 문헌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cf. 이선경(1994), 「필리올리의 좌표결정작용이론」, 『현대 불란서 언어학의 방법과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62) Ibid.,p.160

l'activité de la construction des représentations으로 파악하고, 이를 상위언어를 사용하여 형식화시킨다. 여기서 표상을 구축하는 상징활동이란 언술행위주체에 의해서 언술이 산출되고 이해되는 표상활동을 통해서 의미작용을 하는 이중활동을 뜻한다⁶³⁾. A. Culioli는 이와 같은 상위언어적 표상체계를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구분한다.

-1단계(정신적 표상단계) : 이 단계를 나타내는 것은 개념체 notion로서, 물리 문화적 속성의 총체이다.

-2단계(언어적 표상단계) : 다양한 자연어에 의한 표상작용이 언어적으로 실현되는 단계이다.

-3단계(상위언어적 표상단계) : 언어적 표상단계에 입각하여 언술에 나타난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구축한 규칙과 작용들의 체계이다.

1.1. 좌표결정작용 repérage

A. Culioli는 언술의 연산관계 속에 얽혀 있는 복합적인 언술상황을 보다 엄밀하게 형식화하기 위하여 세 가지 부류의 변수⁶⁴⁾로 구성되어 있는 언술

63) Ibid., p.162

64) 서술연산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발화 상황의 변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Sit₀ : 근원언술상황(Situation d'énonciation origine)

-Sit₁ : 발화상황(Situation de locution)

-Sit₂ : 사건의 상황(Situation de l'événement)

각각의 언술행위 상황은(Sit) 주체 변수(S)와 시간 변수(T)로 구성되어 있다.

-S₀ : 근원언술행위주체(Sujet énonciateur origine)

-S₁ : 발화행위주체(Sujet de locution)

-S₂ : 사건의 주체(Sujet de l'événement)

-T₀ : 근원언술행위순간(Moment de l'énonciation origine)

-T₁ : 발화행위순간(Moment de locution)

의 조직체계 système des coordonnées énonciatives를 제시하였다.

$$\lambda \subseteq \text{Sit}_2(S_2, T_2) \subseteq \text{Sit}_1(S_1, T_1) \subseteq \text{Sit}_0(S_0, T_0)$$

서술연산관계가 언술행위 상황에 좌표결정작용을 받아 상위언어 연산자 \subseteq 에 의해 재현되어 나타나는 가치는 다음과 같다.

-동일화 연산작용 opération d'identification : $X \subseteq Y$ 가 재귀성 réflexive과 대치 가능성 symétrisable을 가지면, \subseteq 는 동일화 연산작용(=)의 가치를 갖는다.

(1) 'Je suis étudiante'라는 언술에서 'Je'라는 표지는 $S_0=S_1=S_2$ 의 연산작용의 언술표면에 나타나는 자취, 흔적이다.

(2) 'Pierre travaille tout le temps'에서 'travaille'라는 표지의 지시가치는 $T_0=T_1=T_2$ 로써 나타난다.

-상이화 연산작용 opération de différenciation : $X \subseteq Y$ 가 비대치성의 특징을 가지면, 상이화 연산작용(\neq)의 가치를 갖는다.

(1) 'Tu m'as raconté des histoires'에서 Tu는 $S_2 \neq S_1$ 의 연산작용의 자취이며,

(2) 복합과거 표지는 $T_2 \neq T_1 \neq T_0$ 의 연산작용의 흔적이다.

-단절 연산작용 opération de rupture : $X \subseteq Y$ 가 비재귀성과 대치성을 가지면 단절의 작용(rupture ω)을 갖는다.

(1) 'Il a mangé trois pommes'에서 Il은 $S_2 \omega S_1$ 의 연산작용의 자취이다.

-T₂ : 사건의 순간(Moment de l'événement)

cf.Ibid., pp.176-177

(2) 'Paul n'est pas étudiant'에서는 두 용어 Paul과 étudiant 사이에 관계의 단절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별 연산작용 opération d'étoile⁶⁵⁾ : 위의 세 가지 연산작용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동일화 관계나 상이화 관계도 아니고 동일화 관계나 상이화 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1.2. 위치결정작용 localisation과 유효화작용 validation

언술의 의미가 산출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좌표결정작용이 일어난다. 하나는 언술이 실제로 일어나는 시, 공간의 상황 속에 놓이게 하는 위치결정작용 localisation이고, 다른 하나는 근원언술행위 주체가 언술을 통해 그 언술이 유효가능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유효화작용⁶⁶⁾이다.

근원언술행위주체(S₀)가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언술들을 분석할 때는 발화상황이 더 이상 Sit₀으로 기능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S₀가 언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법의 용법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A. Culioli의 개념적 도구로서 근원언술상황 이외에 가상적 상황 situation-origine fictive인 Sit₀¹을 구성해야 한다. 이 가상적 상황이란 언술상황의 원점과 별(*)의 관계에 있다. 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Sit₀¹은 Sit₀과

65) cf. 박윤미(1999), 『불어 조건문 'si p, q'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44

66) A. Culioli에 의하면 유효화 작용은 사건이 실제로 실현되었는가의 개념과 관련된다. 예를 들어 il fera bon demain에서 미래의 사용으로 발화체가 실제로 실현되었는지 화자는 알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근원언술행위 주체는 사건을 실현가능한 목표(visée)로서 설정하게 된다. 또한 Franckel에 따르면 유효화 작용은 언술행위 주체들의 책임영역과 관련된다.

cf. Ibid., p.46

단절의 관계와 동일화 관계 혹은 단절의 관계와 상이화 관계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의 예문에서 볼 때

(51) Si Luc revenait, je serais heureuse.

근원언술상황 Sit_0 은 가상적 상황 Sit_0^1 과 단절의 관계에 있으면서 «si p»의 조건절에서 반과거를 사용함으로써 상이화 관계에 위치한다⁶⁷⁾. 가상적 상황은 근원언술상황과 마찬가지로 주체 변수 S와 시간 변수 T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가상적 상황은 가상적 주체⁶⁸⁾ S_0^1 와 가상적 순간 T_0^1 으로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근원 언술상황에서 유효가능하지 않은 서술연산관계는 가상적 상황에서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2. 사행의 좌표결정작용과 조건법

동사의 사행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면 과거에 위치하고, 아직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관계된 경우엔 현재에 위치하며 사건의 실현가능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미래의 시간에 위치한다. 따라서 T_0 에 선행하는 이미 지나간 과거 시간이나 T_0 와 동시적인 현재의 사건은 시간적 좌표결정

67) 'si Luc revient, je serai heureuse.'에서도 가상적 상황과 근원언술상황은 단절의 관계에 있지만 «si p»절에서 현재를 사용함으로써 가상적 상황과 근원언술상황은 동일화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차이가 있다.

68) A. Culioli(1984)는 가상적 주체는 근원언술행위 주체와 분리되어 단절의 관계를 구축한다고 지적한다. 가상적 주체는 근원언술행위 주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발화체에 대한 분석에서 요구되는 조작적인 지표이다.

cf. Ibid.,p.45

repérage temporel에 의해 확실성의 영역에서 시간적 가치를 나타낸다. 즉 사행이 언술상황을 중심으로 위치결정된 것을 의미하며 사행의 구축이 순간부류 classe des instants와 상대적으로 작용하면서 현행 actuel과 이미 일어남 révolu을 나타내면서 사실영역 factuel에 속하게 된다⁶⁹⁾. 그러나 사행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위치결정되지 않거나 위치결정이 되지 않은 영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적 좌표결정에 의해 구축될 수 없다.⁷⁰⁾ 따라서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불확실성 영역에서 주관적 좌표결정 repérage subjectif에 의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들, 즉 앞으로 예상되는 생각이나 가상의 것, 잠재적인 것, 고려가능한 것들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사행은 주관적인 구축과 연관되어 양상적 가치를 나타낼 수 있게 한다.

한편 동사의 시제를 분석하기 위해 A. Culioli는 T_0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가상적 순간 situation-origine fictive인 T_0^1 과 전이된 순간 repère-origine translaté인 T_0' 라는 개념적 도구를 구축한다⁷¹⁾. 가상적 순간 T_0^1 은 T_0 와 별(*)의 관계에 있으며 단절의 관계($T_0^1 \omega T_0$)와 동일화 관계($T_1 = T_0$)를 구축하거나 단절의 관계($T_0^1 \omega T_0$)와 상이화 관계($T_1 \neq T_0$)로 구축될 수 있다. 또한 전이된 순간 T_0' 는 발화순간의 원점 T_0 에서 부터 전이되어 이미 지나간 révolu 영역의 순간으로서, 근원 언술행위순간 T_0 과 상이화 관계($T_0' \neq T_0$)를 맺고 있으며 T_0 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다⁷²⁾.

69) cf. 이선경, op.cit., p.204

70) A. Culioli는 동사의 사행이 표현하는 시간에 대해 현재는(actuel) 과거(révolu)와 미래(avenir)의 대칭 관계의 중심으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미래는 시간으로 고려될 수 없지만 시상과 양상의 가치에 의해 미래의 특정한 지위를 결정한다고 말한다.

cf. 박윤미, op.cit.,p.114에서 재인용

71) Ibid.,p.116

72) Ibid.,p.116

2.1. S와 T의 면에서 살펴본 조건법

이제 언술행위 상황의 변수인 주체 변수 S와 시간 변수 T 간의 복합적인 연결방식을 통해 조건법의 용법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P. Haillet의 조건법 분석에서 사용된 예문들을 다시 인용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P. Haillet가 시제적 조건법에서 설명한 다음의 예문을 먼저 살펴보자.

(28) Max a dit qu'il viendrait nous chercher à la gare.

예문 (28)에서는 주절에 복합과거를 사용함으로써 시간적 좌표결정작용에 의해 사건이 과거에 위치하고 있다. 즉 S_0 는 T_0 로부터 전이된 순간 repère-origine translaté인 T_0' 을 구축하게 된다. 전이된 순간 T_0' 는 T_0 에서 이미 지나간 영역의 순간이므로 T_0 와 상이화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전이된 순간인 T_0' 는 T_0 가 가진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문의 종속절에서의 조건법의 사용은 복합과거에 의해 표현된 과거 시점에서 사건의 실현 여부를 알 수 없는 미래의 잠재적 가치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S_0 는 언술에 책임을 지는 주체 변수로서 유효자 valideur인 S_0 ⁷³⁾을 설정하게 된다. 따라서 예문 (28)과 같은 시제적 조건법 안에서 언술에 책임을 지는 유효자는 S_0 가 아닌 T_0' 에서의 S_0 였던 'Max'가 된다. 그리고 조건법으로 표현된 사행 venir의 실현 여부는 사건의 실현여

73) De Vogüé는 유효자의 개념을 사용하여 발화적 지위를 분석한다. 불확실성 영역에서 근원언술행위 주체는 발화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단지 유효가능한 것으로 서술연산관계를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주체 변수로서 근원언술행위 주체 이외에 언술에 책임을 지는 유효자를 상정하는 것이다.

cf. Ibid.,p.46, p.116

부를 결정하는 또 다른 주체에 의해 P 또는 P' 중 하나가 선택될 수 있게 된다.

이제 예술적 이타성의 조건법에서 사용된 예문들을 살펴보겠다. 과거의 지표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 조건법은 근원예술행위 순간 T_0 와 단절의 관계에 놓여 가상적 순간 T_0' 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S_0 는 가상적 주체 S_0' 를 유효자로 삼아 P나 P'를 목표로 삼게 된다. 그런데 미래가 P나 P' 모두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조건법은 예술에 책임을 지는 유효자 이외에 사건의 실제 실현여부를 결정하는 예술행위 주체로 하여금 P'의 선택을 배제하지 않게 함으로써 예술에 대한 불확실한 가치나 비현실적인 가치를 산출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조건법의 '과거에서의 미래'라는 시제적 가치 이외에 양상적 가치를 예술행위 이론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25) Le père de Max aurait milité au PCF.

(34) François Mitterrand devrait se rendre dans les pays Baltes à la mi-mai.

위의 예문들에서 S_0 는 얻어진 내용을 단지 말하고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예술에 책임을 지는 유효자 S_0' 는 위의 문맥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조건법의 사용은 이처럼 S_0 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사행 *Le-père-de-Max-militer-au-PCF*와 *François Mitterrand-devoir-se rendre-dans-les-pays-Baltes*에 대해서 P 뿐만 아니라 P'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게 된다. 다시 말해 사건의 실제 실현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조건법으로 인해 사행에 대해 유효가능한 것과 유효가능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문을 살펴보면,

(52) Elle accepterait de parler à la télévision.

S_0 는 T_0 와 단절된 가상적 순간 T_0^1 에서 *accepter de parler à la télévision*와 *ne pas accepter de parler à la télévision*라는 두 사행 모두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실제 실현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T_0 가 아닌 T_0^1 에서 사행에 대한 유효가능성을 결정하게 된다.

가정의 조건법은 언술행위이론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44) S'il était pauvre, il ne roulerait pas en Porsche.

(53) Si j'étais avec toi, je pourrais te le dire.

«si p, q» 구문에서 사용된 조건법의 S_0 는 근원언술상황 Sit_0 와 단절된 가상적 상황 Sit_0^1 을 설정한다. S_0 는 si와의 결합과 함께 목표가 되는 유효가능한 두 가치 P와 P'를 고려할 수 있다⁷⁴). 위의 예문들에서는 si의 조건절에서 반과거를 사용함으로써 Sit_0 과 Sit_0^1 이 상이화관계($Sit_0 \neq Sit_0^1$)를 이루게 된다. 또한 q절에서 조건법의 사용으로 인해 S_0 는 언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사건의 실현 여부를 알고 있는 다른 주체에게 P'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Sit_0 에서의 비현실적 가치를 산출하게 된다.

(47) Une chose est claire, désormais : si le maire sortant était réélu, il le devrait à des appuis douteux et à des financements inavouables.

74) Ibid.,p.120

예문 (47)의 경우와 같이 사건의 실현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P와 P'를 모두 고려할 수 있게 하여 잠재적 가치를 산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하나의 가치만을 고려하는 단언과는 달리 S_0 가 P의 유효가능성을 결정하는게 아니라 si로 설정된 가정적 목표 안에서 실현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에게 유효가능한 두 가치를 모두 고려하게 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45) C'est grâce au Premier ministre que nous avons fini par trouver un compromis. S'il n'était pas intervenu, nous n'aurions pas obtenu satisfaction.

(54) Si tu avais été avec moi, tu me l'aurais dit.

예문 (45)와 (54)에서 p절의 대과거와 q절의 조건법 과거가 결합하여 근원언술상황 S_{i0} 와 단절되어 과거로 전이된 가상적 상황 S_{i0}^1 을 설정하여 과거에서의 비현실적 가치가 나타난다. 'si 대과거, 조건법 과거'에서도 책임을 지는 유효자와 사건의 실현여부를 결정짓는 주체가 분리됨으로써 비현실적 가치를 나타내게 된다.

«si p, q»에서 나타나는 반과거와 대과거, 조건법 현재와 조건법 과거 사이에 나타나는 대립은 가상적 상황 S_{i0}^1 이 현재나 미래에 위치할 때는 잠재적 가치나 비현실적 가치로 나타나고 S_{i0}^1 이 과거에 위치할 때는 비현실적 가치로만 나타나는 양상적 대립의 관계로 파악해야 한다.

지금까지 언술행위 이론을 통해 언술상황을 구성하는 주체 변수 S와 시간 변수 T의 관계에 의해 조건법에 나타내는 의미가치들을 살펴보았다. 조건법으로 표현된 언술에서의 S_0 는 자신의 언술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언술의 책임자로서 또 다른 유효자 S_0^1 을 설정하게 된다. 조건법을

사용한 언술의 S_0 가 주절에 과거시제를 사용하여 T_0 로부터 전이된 순간 T_0' 에서 조건법을 사용했을 때는 조건법이 불확실성의 영역에 위치하는 미래와 같은 가치를 갖게 한다. 따라서 P와 P'를 모두 고려할 수 있게 하여 잠재적 가치를 산출한다. 한편 과거와 연결이 사라지면 조건법은 사건의 실제 실현여부를 결정짓는 주체를 분리시켜 주체가 p'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언술에 대한 불확실한 가치나 비현실적인 가치를 산출하여 조건법의 양상적 가치들까지도 설명해 줄 수 있었다.

V. 결 론

지금까지 본 논문은 전통 문법에서 독자적인 하나의 서법으로 분류되었던 조건법이 담화 차원에서 시제적 가치와 양상적 가치를 모두 지닐 수 있는 직설법 시제 중 하나라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다성 이론과 언술 행위 이론을 토대로 조건법의 의미가치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랑그 차원에서 조건법에 들어 있는 표지 *-r-*은 chronotype ω 를 축소시켜 그 흔적만 남게 한다. 이 때 조건법의 chronotype ω 는 조건법이 과거의 기점과 연결되게 하여 과거에서의 미래라는 시제적 기능을 지닐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또한 내재적 가정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미래의 chronotype α 와는 달리 반과거의 chronotype α 를 근간으로 형성된 조건법은 가정의 초과량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의 연결이 사라지면 담화 차원에서 다양한 양상적 기능을 갖게 된다.

G. Guillaume의 이론으로 설명된 조건법의 이러한 특징은 담화 차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가치들을 R. Martin의 가능세계와 신계의 개념들의 도입으로도 설명할 수 있게 해 준다. R. Martin은 화자의 신계의 변화가 수반되는 과거에서의 미래를 나타내는 조건법과 불확실한 정보의 조건법을 신계적 조건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는 미래의 chronotype α 와 본질이 다른 조건법의 chronotype α 에 의해서 설명되는 용법들이다. 또한 «si p, q»로 나타나는 가정 체계 안에서는 화자의 태도에 따라 잠재성과 비현실성이라는 의미효과들을 산출하는 용법들은 가능세계적 조건법으로 분류된다.

조건법에 대한 R. Martin의 이러한 분류 방법은 근본적으로는 조건법의 본질적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행에 대한

화자의 시각과 관련된 분류 방법이라는 점에서 조건법의 의미가치들을 설명하는데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주었다.

본 논문은 궁극적으로, 조건법의 가치들을 화자에 초점을 두고 살펴본다. 다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P. Haillet의 조건법 분석을 통해 조건법이 화자 및 언술 주체와 관련하여 어떤 의미효과들을 산출해 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시제적 조건법에서 화자는 이전의 언술행위에 대한 근원으로 언술 안에 자신과 분리된 화자를 등장시킬 수도 있고 'je'로 지시된 담화에서는 L-화자와 λ -화자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여 사행에 대한 동일한 화자의 구분되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P. Haillet의 분석은 양상적 조건법에서 사행에 대한 관점의 분리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언술적 이타성의 조건법에서 화자는 조건법을 사용함으로써 언술의 내용에 대해 거리를 두고 책임을 지지 않는 효과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두 화자란 분리된 별개의 화자 즉 언술의 근원이며 책임자로서의 화자와 언술에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보고하는 화자에 관련된다. 이와 구분되는 또 다른 유형의 화자의 분리는 화자 자신이 만들어낸 언술에 대한 거리 설정과 연관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L-화자와 λ -화자 사이의 구분이며 분리된 두 화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데 차이가 있다. 또한 P. Haillet의 분석을 통해 볼 때 가정의 조건법에서 화자는 조건법을 사용함으로써 사행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런데 «Si p, q» et ni «q», ni «~q» 유형의 조건법은 화자의 현실세계와 관련하여 현재형이나 복합과거로의 환언문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화자는 언술 자체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관점이외에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조건법으로 나타난 언술 안에서 언술의 화자는 다른 언술행위자나 또 다른 관점, 다른 화자

를 암시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조건법의 모든 용법들을 다성 이론으로 설명해 내는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건법을 다성 이론의 방법론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언술 주체들을 명명하는 용어들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위상 정립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건법의 의미가치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A. Culioli의 언술행위 이론을 소개하였다. 이 부분은 언술상황을 구성하는 주체 변수 S와 시간 변수 T의 관계에 의해서 조건법의 용법들을 상위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조건법으로 나타난 언술에서의 S_0 가 언술의 책임자로서 또 다른 유효자 S_0' 와 사건의 실제 실현여부를 결정짓는 주체를 분리하여 설정함으로써 P. Haillet의 조건법 분석에서 나타난 언술 주체의 분리 현상을 형식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조건법의 다양한 의미가치들을 분석함에 있어 어느 한 이론에만 국한시켜 살펴본다는 것은 모든 가치들을 일관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언어 이론들을 적용하여 조건법의 용법들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언어학적으로 의미있는 일이 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고 방법론을 소개하는데 그친 언술행위이론을 적용한 조건법 연구와 조건법의 다양한 용법들을 설명하는 새로운 방법들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 고 문 헌

- Culioli, A.,(1984) “Remarques finales en guise de conclusion” dans *Modèles linguistiques*, T.6, 1, Table ronde sur l’opposition verbo-nominale, PUF, pp.239-248
- (1992) “Ouverture” dans *La théorie d’Antoine Culioli, Ouvertures et incidences*, Ophrys, pp.3-15
- Dendale, P.,(1993) “Le conditionnel de l’information incertaine : marqueur modal ou marqueur évidentiel?” In G. Hilty(éd), *Actes du XX° Congrès International de Linguistique et Philologie Romanes*, Université de Zurich, pp.165-176
- (1994) “Devoir épistémique, marqueur modal ou évidentiel?”, *Langue française* n° 102, Larousse, pp.24-40
- (2001) “Les problèmes linguistiques du conditionnel français” dans *le Conditionnel en Français*, Dendale, Patrick et Tasmowski, Liliane(éds.), Université de Metz, pp.7-18
- Ducrot, O.,(1984) *Le dire et le dit*, Minuit.
- Gosselin, L.,(1998) “Les valeurs de l’imparfait et du conditionnel dans les systèmes hypothétiques”, *Cahiers Chronos* n°4, pp.29-51
- (2001) “Relations temporelles et modales dans le conditionnel journalistique” dans *le Conditionnel en Français*, Dendale, Patrick et Tasmowski,

- Liliane(éds.), Université de Metz, pp.45-64
- Grevisse, M.,(1980) *Le Bon Usage*, Duculot.
- Guillaume, G.,(1969) *Langue et science du langage*, Librairie A.-G. Nizet.
- (1970) *Temps et verbe*, Champion.
- (1971) *Leçons de linguistique, 1948-1949, Série A*, Structure sémiologique et structure psychique de la langue français 1,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Klincksieck.
- Haillet, P.,(2002) *Le conditionnel en français : une approche polyphonique*, Ophrys.
- Joly, A.,(1987) *Essais de systématique énonciative*,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 Korzen et Nølke.,(1990) "Projet pour une théorie des emplois du conditionnel" in O. Halmøy, A. Halvorasen et L. Lorentzen(eds), Université de Trondheim, pp.273-300
- (2001) "Le conditionnel : niveaux de modalisation" dans *le Conditionnel en Français*, Dendale, Patrick et Tasmowski, Liliane(éds.), Université de Metz, pp.125-144
- Martin, R.,(1983) *Pour une logique du sens*, PUF.
- Moeschler, J et Reboul, A.,(2001) "Conditionnel et assertion conditionnelle" dans *le Conditionnel en*

Français, Dendale, Patrick et
Tasmowski, Liliane(éds.), Université de
Metz, pp.147-166

Riegel, M., Pellat, J.-ch. & Rioul, R.,(1994) *Grammaire méthodique
du français*, PUF.

Siouffi, G et Raemdonck, D.V.,(1999) *100 fiches pour comprendre la
linguistique*, Bréal.

Vet, C.,(1981) “La notion de monde possible et le système temporel
et aspectuel du français”, *Langages*, 64, pp.109-124

박동렬(1992), 『Psychomécanique의 시각으로 본 le conditionnel』,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윤미(1999), 『불어 조건문 ‘si p, q’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오주연(1996), 『단순미래와 조건법 : G. Guillaume과 R. Martin을 중
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선경(1994), 「필리올리의 좌표결정작용이론」, 『현대불란서 언어학
의 방법과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pp.159-214

이정(1994), 「마르팽의 의미론」, 『현대불란서 언어학의 방법과 실
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pp.339-400

질 시우피, 단 반 람돈크(2005), 이선경, 황원미 옮김, 『언어학 이해를
위한 주제 100선』, 동문선.

홍종화(1994), 「뒤크로의 논증·발화·다성 이론」, 『현대불란서 언어
학의 방법과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pp.318-330

황원미(1986), 『Conditionnel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RÉSUMÉ

Etude sur le conditionnel en français

Han Jung-Mi

Département de langue et de littérature françaises

Cours de maîtrise

Université féminine de Sung-shin

Le conditionnel a non seulement la valeur temporelle (le futur du passé) mais aussi la valeur modale qui exprime l'éventualité, la potentialité, l'irréalité.

Cette étude a pour but d'analyser les valeurs sémantiques du conditionnel en français du point de vue de la polyphonie et de les expliquer systématiquement en métalangue selon la théorie de l'énonciation de A. Culioli.

Dans le deuxième chapitre, on a examiné les études déjà établies sur le conditionnel.

Les linguistes en grammaire traditionnelle qui considèrent le conditionnel comme un mode n'ont pas expliqué la cause de l'apparition des emplois temporels. Et G. Guillaume a expliqué la nature essentielle du conditionnel dans la langue avec la notion de chronotypes α et ω

qui composent le présent. On a pu comprendre la relation entre les emplois temporels et modaux du conditionnel par sa théorie. Ensuite, pour expliquer les divers emplois du conditionnel dans le discours, on a traité les conceptions du monde possible et de l'univers de croyance par R. Martin. Avec leurs théories plus progressives et systématiques, on a pu expliquer les divers emplois du conditionnel comme un temps indicatif.

Dans le troisième chapitre, on a analysé les emplois du conditionnel dans une perspective polyphonique. La polyphonie est basée sur le fait qu'il y a plusieurs énonciateurs dans un énoncé. D'après P. Haillet, le conditionnel est un marqueur de polyphonie. En rendant compte de l'analyse polyphonique sur le conditionnel, on a montré que l'emploi du conditionnel a pour effet de mettre en scène deux énonciateurs ou deux points de vue par rapport à la représentation du procès. Cependant, l'analyse sur le conditionnel d'hypothèse du type «Si p, q» et ni «q», ni « \sim q» n'est pas arrivée à montrer la pluralité du point de vue sur le procès au conditionnel.

Dans le quatrième chapitre, on a traité le conditionnel selon la théorie d'énonciation de A. Culioli. Pour essayer d'expliquer les emplois du conditionnel en métalangue, on a introduit T(repère temporel des procès) et S(repère subjectif de constructions des procès). Ces variables peuvent rendre compte du procès au conditionnel qui positionne sur le plan temporel mais aussi le plan subjectif de l'énonciateur en prenant en compte la situation d'énoncé.

Cette étude a montré la possibilité de voir que l'on peut traiter du conditionnel à partir de plusieurs points de vue linguistique pour expliquer ses emplois variés. D'autres études plus profondes sur le conditionnel selon ces théories seraient nécessaires.